

곽 은 영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Robert Schumann의 연가곡  
『Dichterliebe, op.48』에 관한 연구

- 반주부를 중심으로 -

2006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오 지 영

Robert Schumann의 연가곡  
『Dichterliebe, op.48』에 관한 연구

- 반주부를 중심으로 -

곽 은 영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오 지 영

# 인 준 서

오지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 론 .....	1
--------------	---

## II. 본 론

1 . 슈만가곡의 특징 .....	2
--------------------	---

2 . 하이네 .....	4
---------------	---

3 . 「시인의 사랑」 작곡배경 .....	5
-------------------------	---

4 . 작품분석 .....	8
----------------	---

III. 결 론 .....	86
----------------	----

## 참 고 문 헌

## ABSTRACT

## 논문개요

본 논문은 슈만(Robert Schumann : 1810-1856)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Dichterliebe) op. 48」에 관한 연구이다.

이 곡은 하이네(Heinrich Heine : 1797-1856)의 시에 붙여진 16개의 곡으로 제 1~6곡까지는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고 제 7~14곡까지는 실연의 아픔을, 마지막 2곡은 지나간 청춘에의 허무한 향수를 그리고 있다. 슈만은 응답없는 사랑, 고통, 비참함에 대한 이 시들을 성악을 위한 친밀한 교향곡으로 표현하였으며 시인의 염원과 경이로움, 그리고 사랑의 풍부함은 그가 마침내 자신의 사랑이 보답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파괴되고 만다.

이 곡은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암시하는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다.

서로 인접한 두 곡은 친근한 관계조로 연결되어 있는데 가장 강하게 서로를 통합시키는 장치는 마지막 제 16곡의 후주에 제 12곡의 일부를 재사용한 점이다.

하지만 이 연가곡은 구조적인 면에서는 각각 자유롭게 쓰여졌고 변화가 풍부하며 형식의 아름다움보다 시의 흐름에 따라 음악적 내용도 그 명암을 같이 하고 있으며 모든 음악적 요소가 각 가곡들 안에서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다.

또한 피아노 반주부가 종래의 음악적 보조적 개념을 뒤엎고 독자적인 세계를 열어 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시인의 사랑」은 많은 실연의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과 확연한 의지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 I. 서론

슈만(Robert Schumann : 1810-1856)은 독일 낭만파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중의 한 사람으로서 슈베르트(Franz Schubert : 1797-1828)가 개척한 시와 음악의 조화를 더욱 완벽하게 구사시켰으며, 독일 낭만 가곡을 한층 더 높은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킨 작곡가이다.

그의 가곡은 성악과 피아노가 동등하게 어울리는 이중주라는 점을 특징으로 하며 때로는 피아노가 더 강조되기도 하는데 반주가 곡의 분위기나 시의 특정 이미지를 그려내기도 하며 전주, 간주 그리고 후주부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여 더욱 많은 역할을 하게함은 주목할 만하다.

반주는 작품전체 구조의 토대가 된다는 의미에서 연주자와의 진정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 좋은 앙상블을 위해 반주자 스스로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함께 하는 연주자와의 음악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융화와 조화의 극치를 이루도록 하는 노력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Dichterliebe) op. 48」을 채택하여 슈만가곡의 특징과 하이네(Heinrich Heine : 1797~1856) 시에 의해 작곡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각 곡의 형식, 시의 내용, 조성의 변화가 앞 곡과는 어떤 관계인지, 성악부보다도 피아노가 얼마만큼 주도적으로 시의 내용과 음악을 조화시켰는지를 반주자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연주자가 이 작품을 실제 연주함에 있어서 단순히 기능면에 치우치지 않고 그의 음악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슈만 가곡의 특징

슈만(Robert Schumann : 1810-1856)은 슈베르트(Franz Schubert : 1797-1828)의 전통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더한층 발전시켰다.

슈베르트의 음악이 그 서정적인 성격과 화성의 색채라는 면에서 볼 때 낭만주의적이긴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늘 고전주의적인 청량함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슈만의 음악은 낭만주의 흐름에 끊임없는 진가를 보여 주었다.<sup>1)</sup>

슈만의 1840년 이전의 작품은 피아노곡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1840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곡을 작곡하기 시작하였다.

슈만의 가곡은 대략 2기로 구분되는데 1기는 그가 결혼한 해인 1840년이고 2기는 1850~1852년으로써 정신병 발병 직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특징 중의 하나는 작품 경향이 대체로 몽상적이고 내성적이라는 점인데, 이는 그가 한창 민감한 나이이던 16세 때 하나뿐인 누나 에밀리와 그의 아버지의 잇단 죽음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하나의 특징은 시와 음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낭만주의 제 3기의 시인이라 할 수 있는 하이네(Heinrich Heine : 1797-1856), 쾰르너(Karl Theodor Körner : 1791-1813), 샬미소(Adalbert von Chamisso : 1781-1838), 뤼케르트(Friedrich Rückert : 1788-1866), 아이헨도르프(Joseph von Eichendorff : 1788-1857) 등이 활동했던 시기로 낭만주의의 특색있는 시가 풍부하

---

1) Victor Basch, 「Schumann」 (New York : Tudor ), p. 225

게 나온 때였다.

특히 슈만은 하이네의 시를 좋아했는데 그의 가곡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이네 역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며<sup>2)</sup> 슈만은 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세밀한 면을 보여 주었다. 즉 그는 시에 내포되어 있는 사상과 감정까지를 예리하게 파고들어 자기의 사상, 감정과 부합되는 것을 선택하였으며 일단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여 자기가 의도한 바를 표현하였다. 또한 그는 시를 음악적인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척하였다. 그는 시의 낱말이나 구절을 반복할 때에는 특별한 극적인 효과를 추구한 경우이거나, 또는 시가 내포하는 의미 중 강조할 부분에 특징적인 *rit.*를 한정된 짧은 부분에 가끔 사용하였을 뿐이다.

즉 슈만은 시의 언어적 아름다움과 감동을 살리며 일상에서 얻은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움직임을 그대로 음표에 적어갔다. 그러므로 슈만의 가곡을 이해함은 어떤 대상의 외적인 면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내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형별로는 민요곡조의 단순함을 갖고 있는 것과 대담하게 비약하는 멜로디를 갖는 것이 포함되기도 한다.

슈만은 그의 리듬과 화성에 독특한 흥미를 주는 당김음과 예비음을 즐겨 사용했으며 해학적인 기분을 갖고 있기도 하다.<sup>3)</sup>

그의 반주부는 선율적인 재료들을 취급하게 되고 그것은 성악의 멜로디와 상호 연관된 작용을 하면서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반주 패턴과 스타일을 폭넓게 구사하면서 피아노 작곡가로서의 대가다운 면모를 반영한다. 슈만의 가곡은 전주와 간주, 그리고 후주에서 보다 확장된 모습을 보인다.

---

2) David Ewen, 『Musical Masterworks』 (New York : Argo), p. 343

3) Finck, T. Henry, 삼호출판사 역, 『가곡의 역사와 작곡가』 (서울 : 삼호, 1976), p. 112

그는 가곡과 연가곡에서 세심하게 정렬된 조성관계나 음악적 동기에 의한 연결, 그리고 특별한 음악적 의미 등을 부여했는데 이는 그의 정리정돈을 위한 강한 집착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풍부한 모티브를 사용했는데 그의 가곡들은 연인 클라라의 이름에서 따온 특별한 모티브(Clara, C→B→A→G<sup>#</sup>→A)를 수없이 사용했고 다양하게 변형시키기도 했다.<sup>4)</sup>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슈만은 새로운 방향에서 가곡에 접근하는 시도를 한 작곡가이며 낭만시대 예술가곡의 표현의 발상을 대두시키는데 중요한 요건이 된 선율과 색채적 표현은 그의 수준 높은 지성에 따른 예술성을 부각하고 있다 하겠다.<sup>5)</sup>

또한 슈만은 반주를 선율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음으로써 성악과 피아노의 2중주를 실현시킨 작곡가이다.

## 2. 하이네

하이네(Heinrich Heine : 1797-1856)는 강렬한 색채를 지닌 세계주의자였으며 19세기 전반에 7월혁명, 2월혁명과 같은 어려운 시국 속에서 독일의 비참함을 극복하기 위해 싸운 애국시인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모순을 항상 의식하고 비판함으로써 진실만을 추구했다. 서정의 아름다움과 비판의 날카로움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시와 산문으로 보수적인 속물을 풍자하고 위선자를 공격하면서 진실된 인간성을 옹호하였다.<sup>6)</sup>

---

4) Carol Kimball, 「 Song 」 (Washington : Redmond, 1996), p. 86

5) C. Roatand, 삼호출판사 역 「독일음악」 (서울 : 삼호출판사, 1986), p. 137

그는 자신의 정치, 사회적 견해를 밝히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수용과 감출 수 없는 불안을 글로 기술하였지만 일정한 거리를 가졌고, 계속적으로 자유와 사회적 권리에 대해 주시하였다.<sup>7)</sup>

하이네는 사춘인 테레제를 연모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실연의 고통을 「서정적 간주곡(Lyrisches Intermezzo)」 등의 작품으로 남겼다. 그는 간결한 시형과 열렬한 정서의 소유자로 서정적인 작곡가들이 좋아하는 시인이 되었다.

1886년에 출판된 샬리에의 가곡 목록은 하이네의 시에 의한 것을 3,000곡 이상 포함하고 있다. 괴테가 그 다음으로 1,700곡, 다른 서정시인들은 그보다 훨씬 적다. 하이네의 개성이 충만한 시 가운데 「Du bist wie eine Blume(그대는 꽃과 같이)」는 그 당시 여러 작곡가에 의해 가곡으로 만들어진 것이 무려 160곡, 「Ich hab' im traum geweinet(나는 꿈속에서 울었네)」에 붙여진 곡은 83곡 등이 있다.<sup>8)</sup>

### 3. 「시인의 사랑」 작곡 배경

슈베르트(Franz Schubert : 1797-1828)가 18세기말의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 1748-1832), 쉴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 : 1759-1805)나 초기 낭만파 작가인 18세기 초·중기의 클롭스톡(Friedrich Gottlieb Klopstock : 1724-1803) 등의 시를 텍스트로 많은 가곡을 작곡한 데 반하여 슈만(Robert Schumann : 1810-1856)은 하이네(Heinrich Heine : 1797-1856), 아이헨도르프(Joseph von

6) Heinrich Heine, 강두식 역, 「하이네 시집」 (서울 : 정음사, 1973), p. 175

7) 김연순, 「도이치 시 문학의 어제와 오늘」 (서울 : 사계절, 1993), p. 91

8) Finck, T. Henry, 앞의 책, p. 99

Eichendorff : 1788-1857), 뤼케르트(Friedrich Rückert : 1788-1866), 샤미소(Adalbert von Chamisso : 1781-1838) 등 19세기에 속한 시인들의 시에 주로 음악을 만들었다.

물론 슈베르트가 뮐러(Müller : 1774-1827), 하이네 등의 젊은 시인들의 시에 의하여 작곡한 가곡도 상당수 있으나, 가곡 작품의 연대적인 비중에 의한다면 슈베르트는 다분히 시에 있어서 18세기에 큰 비중을 두고, 슈만은 19세기에 비중을 두고 있다.<sup>9)</sup>

슈만은 클라라와 열정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많은 가곡을 썼으며 또한 가곡을 통하여 미묘한 인간 감정을 묘사했다고 평가받는다. 이렇듯 인간의 깊은 내면 심정을 노래로 발출시킨 그의 가곡은 독일 가곡사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Dichterliebe) op. 48」은 하이네의 시 중 두 번째로 긴 시인 「Gedichte von Heinrich Heine, 20 Lieder und Gesang aus dem Lyrischen Intermezzo (서정적 간주곡)」에서 가사를 취하였다.

하이네는 그의 삼촌 딸과의 사랑에 실패한 쓰라린 경험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심경을 이 「서정적 간주곡」에 담았다. 그는 후에 그의 애인 슈뢰더(Schröder)에게 이 시를 헌정했는데 슈만 역시 클라라와의 5년간에 걸친 어려운 사랑의 체험을 통해 체감한 사랑의 아픔이 있었기에 이러한 사랑의 체험을 하이네가 시로 나타내 보였듯이 슈만 또한 노래로서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다.

이 연가곡은 단편적인 서정시로서 하이네 시집의 65곡 중에서 16곡만을 취했으며, 일관된 줄거리로 배열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하이네 시의 정리된 순서를 따랐다.<sup>10)</sup>

---

9) Stanley Sadie,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X vols.』  
(London : Macmillan Co, 2002), p. 503

이 곡은 슈만이 30세이던 1840년에 작곡되었는데, 이 해는 클라라와의 오랜 연애키간 동안의 사랑을 극복하고 결혼한 해이기도 하다. 1840년 5월 24일에 작곡을 시작하여 일주일 후에 완성되었고<sup>11)</sup> 1844년 라이프찌히의 페터스(peters)사에 의해 출판될 때 초판에 앞서 4곡이 삭제되었고, 헌정자도 바뀌었다.<sup>12)</sup>

---

10) Philip L. Miller, 『The Ring of Words』 (New York : Norton, 1973), pp. 98-115

11) Jansen F. Gustave, 『Schumann briefe』 (Leipzig : Neue folge, 1904), p. 518

12) 슈만은 헌정자를 처음에는 멘델스존으로 했으나 그 당시 유명한 소프라노인 Wilhelmine Schröer Devrient로 바뀌었다.

## 4. 작품 분석

### 1. <제1곡> Im Wunderschönen Monat Mai(아름다운 5월에)

#### 1) 시의 원문 및 번역

Im wunderschönen Monat Mai,	지극히 아름다운 오월,
Als alle Knospen sprangen,	모든 꽃봉오리 터질때
da ist meinen Herzen	나의 마음에
Die Liebe aufgegangen.	사랑이 싹틔네.
Im wunderschönen Monat Mai,	지극히 아름다운 오월,
Als alle Vögel sangen,	모든 새들이 노래할때,
Da hab' ich ihr gestanden	나는 그녀에게 고백했네
Mein Sehnen und Verlangen.	나의 그리움과 갈망을

#### 2) 반주 연구

제 1곡은 느리고 부드러운 (*Langsam Zart*) 2/4박자, f<sup>#</sup>단조의 곡으로 전 16곡 중 스토리의 발달을 예시해 주는 곡으로 5월의 훈풍과 더불어 품고 있던 연정을 여인에게 털어놓는 가슴 두근거림을 묘사하고 있다.

이 곡의 구성을 도표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표 1>

구성	전주	A		간주	A'		후주
		a	b		a	b	
마디	1~4	5~8	9~12	13~15	16~19	20~23	24~26
조성	f <sup>#</sup>	A	b→D	f <sup>#</sup>	A	b→D	f <sup>#</sup>

반주의 분산화음은 봄의 입김속에서 하늘거리는 꽃가지의 질감을 가진 서곡(Prelude) 역할을 하고 있다.<sup>13)</sup>

사랑이 피어나려는 감정의 묘사를 서정성이 뛰어난 아르페지오 선율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선율이 등장하면 반주의 윗성부가 선율선을 일부 중복하기도 하나 서로 성부에 종속되지 않고 노래와 반주가 주고 받으면서 독자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곡에서 슈만은 시인의 감정을 단조에, 자연의 풍경 묘사는 장조에 담아 내는데 제 1~4마디의 f#단조와 제 5마디부터 A장조의 교착이 사랑하는 사람의 미묘한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sup>14)</sup> 또한 피아노의 오른손 윗선율은 붙임줄에 의해 당김과 해결 지연(계류)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독특한 진행을 낳고 있다. 오른손 선율선을 *legato*로 표현해야 함은 물론 왼손에서 오른손 선율선에 이르는 부분도 한 묶음으로 연결해야 한다.

첫머리에서는 f#의 분명한 조성을 느낄 수가 없는데 이는 살며시 어느 틈엔가 찾아온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첫음(C#)은 액센트가 주어지지 않도록 지긋이 건반을 눌러 도입하도록 한다.

(악보 1)

---

13) Lotte Lehmann, 「More than Singing」 (Westport : dover, 1975), p. 141

14) 세광편집국, 「최신 명곡해설전집 24권」 (서울 : 세광, 1992), p. 458

<악보 1> 제 1~8마디

진정 아름다운 오월, 모든 꽃봉오리 터질때

이 곡의 climax인 제 9~12마디는 앞서 가사가 계절을 노래하던 것에 비해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고백하는 부분으로 이부분의 주요 선율선이 A→B→C<sup>#</sup>→D→E→F<sup>#</sup>으로 상행하는 성악성부의 주요 선율선과 더불어 반주 bass부분 역시 A→G→F<sup>#</sup>→B→B<sup>b</sup>→A→D로 하행 진행되어 *cresc.*를 더욱 증폭시키며 사랑의 감정의 증폭, 혹은 가슴속의 설레임을 묘사하듯이 분위기를 고조시켜 준다. 특히 이 곡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climax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두번의 전타음(10마디 E, 12마디 G)인데 이는 전주에서 이미 예견되어졌으며 애절한 사랑의 표현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시적, 음악적 수단인 만큼 설레이듯 성악

선율을 따라가던 오른손 성부의 B→C#을 충분히 함께 느끼고 음미해 주면서 제 10~12마디를 애절하게 *legato* 해 준다. 긴 호흡으로 볼 때 제 8~10마디보다 제 10~12마디가 한층 더 느낌이 커지도록 이끌어가 제 12마디 ‘gangen’에 이르렀을 때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다. (악보 2)

제 13~15마디는 전주와 같은 진행을 하는 간주이며 제 16~23마디는 제 5~12마디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부분으로 ‘진정 아름다운 오월 모든 새들이 노래할 때 나 그녀에게 고백했네 나의 그리움과 갈망을’ 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악보 2> 제 8~13마디

나의 마음에 사랑이 싹틔네

da ist in mei-nem Her-zen die Lie-be auf-ge-

gan-gen.

*ritard.*

또한 후주부는 사랑의 고백은 했으나 여인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듯 완전한 형태로 맺지 못한 채 곡이 마무리 된다. 이는 다음 곡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심리적이고 음악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슈만 가곡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서서히 동작이 멈추어지듯이 자연스런 *rit.*로 이끌어간 후 눈물과 탄식으로부터 승화된 노래가 곧바로 이루어지도록 제 2곡으로 넘어간다.

셈여림은 전체적으로 *p*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듯이 여리고 조용히 연주되며, 노래도 역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sup>15)</sup>

<악보 3> 제 22~26마디

나의 그리움과 갈망을

mei n Seh - nen und Ver - lan - gen.

*ritard..*

*rit.* \*

15) Lotte Lehmann, 앞의 책, p. 141

2. <제 2곡> Aus meinen Tränen spriessen(나의 눈물을 뿌려)

1) 시의 원문 및 번역

Aus meinen Tränen spriessen	나의 눈물에서는
Viel blühende Blumen hervor,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Und meine Seufzer werden	나의 탄식은
Ein Nachtigallenchor.	피꼬리 노래가 되오.
Und wenn du mich lieb hast, Kinchen,	그대 나를 사랑한다면, 소녀여,
Schenk' ich dir die Blumen all'	내 이 꽃 전부를 그대에게 바치리오.
Und vor deinem Fenster soll klingen.	그리고 그대의 창가엔 울릴 것이오
Das Lied der Nachtigall.	피꼬리의 노래가.

2) 반주 연구

이 곡은 빠르지 않은(*Nicht Schnell*) 2/4박자의 A장조 곡이다.

사랑의 고백으로 점점 고조되어 가던 제 1곡의 흐름과는 달리 마치 소박하게 자기마음을 향한 물음인 양, 전체적인 선율과 리듬이 잔잔한 물결을 이루듯이 단아한 느낌을 주는 곡이다.

이 곡의 구성을 도표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표 2>

구성	A		A'	
	a	a'	b	a''
마디	1~4	5~8	9~12	13~17
조성	A	A	A→f <sup>#</sup>	f <sup>#</sup> →A

전주, 간주, 후주가 없고 성악성부와 피아노의 오른손 윗성부가 같은 선율 선을 노래하고 있으며 *slur staccto*로 혼자 눈물을 방울방울 떨어뜨리듯이 작은 느낌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왼손은 하나의 긴 라인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여 제 2마디 첫 박에 이르러 D음을 충분히 느껴준 후 내려오도록 한다.

이 곡의 특징은 악구 끝마다 성악선율이 불완전한 맺음을 하고 반주가 이어받아 완성시키는 점인데 제 4마디 늘임표(ˆ)는 꽃망울이 열리면서 피어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다음의 음과 분리되지 않도록 긴 하나의 흐름으로 끌고 가야 한다. (악보 4)

<악보 4> 제 1~8마디


나의 눈물에서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나의 탄식은 찌꼬리 노래가 되오

**Nicht schnell**

Aus mei - nen Trä - nen sprie - Ben viel blü - hen - de Blu - men her -  
 vor, und mei - ne Seuf - zer wer - den ein Nach - ti - gal - len - chor.

제 9~10마디의 왼손 하행하는 음과 오른손의 내성은 이어지듯이 긴 *legato*로,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는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한다.

제 12마디  음형은 '꽃을 모두' 라는 가사를 한번 더 되뇌이듯이, 호흡하면서 프레이즈를 살짝 분리한 후 다시 이어서 시작하듯이 표현하며 제 13~14마디는 '그대 창가에 울릴 것이오'라는 가사를 음미하며 *pedal*과 함께 *cresc.*했다가 *decresc.*하면서 *pedal*을 떼고 '울릴 것이오' 부분을 또렷이 울려준다.

후주 마지막마디 음형()은 피꼬리의 노래가 울리듯, 여운을 남기듯 연주한다. (악보 5)

<악보 5> 제 8~17마디

그대 날 사랑한다면 소녀여, 이 꽃 전부를 그대에게 바치리오.

그리고 그대 창가엔 울릴 것이오 피꼬리의 노래가



3. <제 3곡> Die Rose, die Lilie, die Taube (장미, 백합, 비둘기)

1) 시의 원문 및 번역

die Rose, die Lilie, die Taube, die Sonne,	장미, 백합, 비둘기, 태양,
Die lieb' ich einst alle in Liebeswonne.	나는 이 모든 것을 환희로 사랑 했었지
Ich lieb' sie nicht mehr, ich liebe alleine	이젠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Die Kleine, die Feine, die Reine, die Eine.	작고, 아름답고, 순결한 한가지
Sie selber, aller Liebe Wonne,	그것만을 사랑하네
Ist Rose und Lilie und Taube und Sonne,	장미, 백합, 비둘기, 태양보다도
Ich liebe alleine die Kleine,	난 오직 작은 것만을 사랑하네
Die Feine, die Reine, die Eine, die Eine.	아름답고, 순결한 그것 그 하나만을

2) 반주 연구

이 곡은 생기있는(*Munter*) 2/4박자, D장조의 통절가곡이다.

안정된 감흥에서 벗어나 설새없이 이어지는 오른손과 왼손이 엇갈리는 리듬으로 들뜬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자신의 연인이야말로 장미, 백합, 비둘기, 태양이라는 예찬을 함과 동시에 청춘의 동경과 행복감을 취한 곡이다.

이 곡의 구성을 도표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표 3>

구성	A		B		후주
	a	a'	b	c	
마디	1~4	5~8	9~12	13~16	17~22
조성	D	D	D→G	D	D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움직이는 반주음형은 마치 시인의 맥박이 설  
새없이 뛰고 있는 것처럼 일관된 움직임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 곡은 종종 너무 빠른 템포로 연주되는데 계속되는 16분음표는 활기  
차고 가벼우나 지나치게 빠르면 안되고 간결하고 심플하게, 무엇보다도 큰  
스케일을 가진 작품인 것처럼 과장되게 표현되어서는 안된다.<sup>16)</sup>

제 1~3마디에서의 오른손과 왼손의 엇갈리는 리듬형은 두근두근 맥박  
이 뛰듯이 일정하고 고르게 표현한다.

제 4마디 'wonne'와 'ich' 사이, 제 8마디 'eine' 이후 성악가가 짧은 호  
흡을 함에 유의하여 반주자도 함께 호흡을 느껴주어 *in tempo*로 성악가  
를 밀어 부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악보 6)

<악보 6> 제 1~8마디

장미, 백합, 비둘기, 태양, 나는 이 모든 것을 환희로 사랑 했었지

Die Ro - se, die Li - lie, die Tau - be, die Son - ne, die liebt' ich einst al - le in Lie - bes.won.ne. Ich

lieb' sie nicht mehr, ich lie - be al - lei - ne die Klei - ne, die Fei - ne, die Rei - ne, die Ei - ne;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e first system of a piece.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music. The first system starts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The melody is written in the treble clef, and the accompaniment is in the bass clef. The lyrics are in German. The second system continues the melody and accompaniment. The lyrics are also in German. There are box numbers 1 and 5 above the first and fifth measures of the first system, respectively.

16) Lotte Lehmann, 앞의 책, p. 143

처음부터 일관되게 움직이던 왼손리듬 형태가 제 9마디부터는 16분음표가 사라지고 8분음표로 길게 나타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예전엔 장미, 백합, 비둘기, 태양에 비유했지만 지금은 오직 그녀에게 이 열정을 바친다는 시 내용의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오른손은 앞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유지하되 왼손은 길이감을 부각시켜 차별화 되도록 표현한다.

제 11마디는 성악선율과 같이 반주도 *rit.*를 하고 ‘Sonne’ 직후 역시 성악가와 함께 호흡한 후 제 12마디 ‘ich’부터는 다시 본디 빠르기로 돌아가도록 잘 리드해 준다. (악보 7)

<악보7> 제 8~17마디

이젠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작고, 아름답고, 순결한 한가지 그것만을 사랑하네

9  
sie sel-ber, al-ler Lie-be Won-ne, ist Ro-se und Li-lie und Tau-be und Son-ne, ich

13  
lie-be al-lei-ne die Kleine, die Fei-ne, die Rei-ne, die Ei-ne, die E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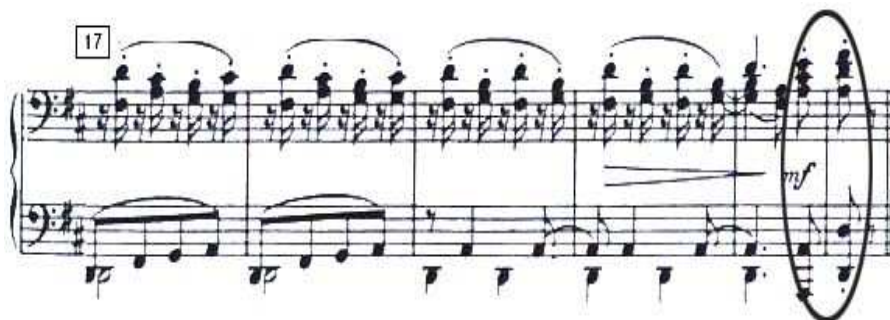
ritard.

ritard.

ritard.

후주부분에서 오른손 *slur staccato*는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마음의 두근거림을, 왼손 상행음계의 *legato*는 행복한 현실의 사랑에 대한 예찬의 감정을 담아 표현하고 마지막 2개의 코드는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처럼 단호하게 연주되어야 한다. (악보 8)

<악보 8> 제 17~22마디



4. <제 4곡> Wenn ich in deine Augen seh'

(그대의 눈을 들여다 보노라면)

1) 시의 원문 및 번역

Wenn ich in deine Augen seh',	그대의 눈을 들여다 보노라면,
So schwindet all' mein Leid und Weh;	나의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Doch wenn ich küsse deinen Mund,	그대의 입가에 나의 입술을 맞출수 있다면,
So werd' ich ganz und gar gesund.	난 아마 너무도 건강해질거요
Wenn ich mich lehn' an deine Brust,	그대의 가슴에 기댈수만 있다면,
Kommt's über mich wie Himmelslust;	천국의 기쁨이 내게 올거예요;
Doch wenn du sprichst: ich liebe dich!	만약에 그대가 "사랑해요!"라고 말하면
So muß ich weinen bitterlich.	난 서글프게 울게 될거예요.

2) 반주 연구

제 4곡은 느린(*Langsam*) 3/4박자, G장조의 통절가곡이다.

전반적으로 *recitativo*적이고 선율감이 빈약한 느낌을 주나, 그 대신 시가 지니는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마치 사랑을 속삭이는 듯한 감미로움을 전해 주고 있다.

이 곡의 구성을 도표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표 4 >

구성	A		B		후주
	a	b	c	d	
마디	1~4	5~8	9~13	14~16	17~21
조성	G	C	E	G	G

G장조의 이 곡은 제 3곡의 D장조와는 버금딸림조 관계이다.

3박자동안 머물러 있는 제 1마디 반주는 연인의 눈동자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내면적인 감정을 묘사하듯이 그윽하고 부드럽게 테누토 해주고 이어지는 제 2마디는 성악성부와 같은 느낌과 톤으로 모방하는데 둘째 박부터 소폭으로 *cresc.* 하여 D음에 이르도록, 그리하여 D음을 좀 더 테누토 하면서 느껴준 후 곧 *decresc.* 해준다.

제 4~7마디에서는 제 7마디 G음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cresc.* 해주며 느낌을 키워 기대에 차 제 7마디 E에 도달하도록 한다. (악보 9)

<악보 9> 제 1~8마디

그대의 눈을 들여다 보노라면  
나의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그대의 입가에 나의 입술을 맞출 수 있다면  
난 아마 너무도 건강해질거요



1 *p*  
Wenn ich in dei - ne Au - gen seh', so  
3  
schwin - det all mein Leid und Weh; doch wenn ich küs - se dei - nen  
6  
Mund, so werd' ich ganz und gar ge - sund.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hree systems. Each system includes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first system starts with a first ending bracket.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steady bass line and chords in the right hand. The second system includes a third ending bracket. The third system includes a sixth ending bracket. The score is in 3/4 time and G major.

제 8마디의 *cresc.*는 다가올 기쁨에 대한 기대심리를 표현해야 하며 제 12마디의 *slur staccato* 는 ‘사랑한다고 말해 준다면’ 하고 한층 더 기대하면서도 내심 긴장하듯이 표현하도록 한다.

제 13마디에서 감 7화음은 사랑하는 이에 대한 젊은이의 불안감을 드러내듯이 긴 *legato*로 느려지고 그리하여 제 14마디의 가사 “당신을 사랑해요”를 함께 음미하면서 충분히 *rit.*해줌으로써 더욱 강조해 준다. 가사 “ich liebe dich!”를 한껏 음미한 후 짧게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이어지는 제 14마디 후반부터는 다시 *a tempo* 의 느낌으로 진행한다. (악보 10)

<악보 10> 제 8~16마디

그대의 가슴에 기댈 수만 있다면 천국의 기쁨이 내게 올 거예요.

만약에 그대가 “사랑해요”라고 말하면 난 서글프게 울게 될거예요

후주의 *slur staccato*는 눈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생각하며 표현하고 제

18마디부터 다시 한번 반복될 때는 오른손 내성에 의해 옥타브 아래에서 표현되는 선율에 현실로 되돌아 온 슬픔으로 마음이 무겁고 지친 듯한 시인의 심리상태를 섬세하게 담아내 준다. (악보 11)

<악보 11> 제 16~21마디

5. <제 5곡> Ich will meine Seele tauchen(내 영혼을 감추고 싶네)

1) 시의 원문 및 번역

Ich will meine Seele tauchen	내 영혼을 감추고 싶네.
In den Kelch der Lilie hinein;	백합꽃 봉오리 속에
Die Lilie soll klingend hauchen	백합은 속삭이겠지
Ein Lied von der Liebsten mein.	나의 사랑의 노래를
Das Lied soll schauen und beben	그 노래 나를 무섭도록 전율케 하리라.
Wie der Kuß von ihrem Mund,	그녀 입의 입맞춤처럼,
Den sie mir einst gegeben	언젠가 나에게 주었던 그 입맞춤
wunderbar süßer Stund'.	놀랍도록 달콤한 시간에

2) 반주 연구

이 곡은 2/4박자, b단조의 고요하고(*Leise*) 애절한 곡이다. 피아노만으로도 아름다운 소곡을 만들어내는 이 곡은 백합의 미묘한 속삭임이 노래가 되어 2절에 걸쳐 흐른다.<sup>17)</sup>

이 곡의 구성을 도표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표 5>

구성	A		A'		후주
	a	b	a'	b'	
마디	1~4	5~8	9~12	13~16	17~22
구성	b	D→b	b	D→b	b

이 곡의 조성 b단조는 제 4곡 G장조의 딸림조인 D장조의 나란한 조 관

17) 세광편집국, 앞의 책, p. 460

계이며, 곡 시작이 그 으뜸화음이 아닌 II (Super tonic) 화음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종지로 향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어 II→V→I의 화성 진행을 보이며 제 2마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으뜸화음이 등장하는 독특한 면을 갖고 있다.

대개 너무 느리게 불려지는데 이 노래는 떨리는 감정으로 넘쳐 있어야 하며 허공에 떠 있듯이, 현실이 아닌 듯 은은하게 연주해야 하지만 멜로디의 흐름은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sup>18)</sup>

부드러운 상행 아르페지오 음형으로 일관되게 흐르는 반주유형은 내성에서 선율선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성악 선율을 바짝 따라가며 중복한다.

사랑의 기쁨과 희망을 표현하듯 피아노의 외성끼리는 듀오처럼, 그리고 성악성부와 각각 오른손, 왼손과도 듀오를 하듯이 8분음형을 살려 주면서 분산화음은 유려한 흐름으로 이끌어 준다. 이때 왼손은 리듬을 정확히 분배해서 독립된 손가락의 고르고 균형있는 테크닉이 요구된다.

화성 진행은 전체적으로 b단조로 되어 있으나 제 5~6마디는 시내용(속삭이겠지)에 의미를 두어 D장조로 전조되면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가사에 맞도록 쓸쓸한 느낌보다는 활기있는 분위기를 주도록 한다.

(악보 12)

<악보 12> 제 1~8마디

---

18) Lotte Lehmann, 앞의 책, p. 143

내 영혼을 감추고 싶네 백합꽃 봉오리 속에,  
백합은 속삭이겠지 나의 사랑의 노래를

1

Ich will mei-ne See-le tau-chen in den

3

Kelch der Lie-lie hin-ein; die Li-lie soll klin-gend

6

hau-chen ein Lied von der Lieb-sten

8

mein.

제 9~16마디는 '언젠가 그녀가 나에게 해주었던 입맞춤'을 내용으로

하고 앞부분과 비슷하게 진행한다.

후주는 제 16~18마디의 첫음(G)까지, 제 18마디 두 번째 음부터 제 20마디의 첫음(B)까지, 그 옛날 감미로운 입맞춤을 추억하면서 감정적으로 커졌다 내려오면서 마음의 고요를 되찾듯 이어지는 제 20~21마디 오른손 내성의 꾸밈음은 4번에 걸쳐 점점 작아지면서 사라지듯이 연주되어야 하며 달콤한 시간들이 과거 속으로 사라져 가는 아쉬움이 담기도록 한다.

(악보 13)

<악보 13> 제 16~22마디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16 to 22.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piano accompaniment. The first system starts at measure 16 and ends at measure 18. The second system starts at measure 19 and ends at measure 22. The score is written for piano with a treble and bass clef. The key signature has two sharps (F# and C#). The melody in the right hand is characterized by a descending line with a slight rise at the end of phrases. The left hand provides a steady accompaniment with eighth and sixteenth notes. There are dynamic markings like 'p' and 'f' throughout. At the end of measure 22, there are vocal-like markings: 'rizar. . . . dan. . . . do'.

6. <제 6곡> Im Rhein, im heiligen Strome (라인강, 성스러운 강물)

1) 시의 원문 및 번역

Im Rhein im heiligen Strome, Da spiegelt sich in den Well'n Mit seinem großen Dome Das große heilige Köln. Im Dom da steht ein Bildnis, Auf goldenem Leder gemalt; In meines Lebens Wildnis Hat's freundlich hineingestrahlt. Es schweben Blumen und Eng'lein, Um unsre liebe Frau; Die Augen, die Lippen, die Wänglein, Die gleichen der Liebsten genau.	라인강 성스러운 강물 그 물결 속에 비치고 있네, 커다란 성당과 거대하고 성스러운 쾰른이. 그 성당에는 초상화 하나 있네 황금 가죽에 그려진 나의 거친 삶에 다정한 빛을 비추어 주네 꽃들과 아기 천사들이 떠돌고 있네 우리의 성모상 주위에 눈과 입술, 두 뺨이 내 사랑의 모습을 꼭 닮았네.
--	--

2) 반주 연구

이 곡은 많은 조성 변화로 다양한 색채를 느끼게 하며, 구조성인 e단조는 제 5곡 b단조와 버금딸림조 관계이다. 3부분으로 구성된 유편가곡으로 이를 도표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표 6>

구성	A		B		간주	C	후주
	a	a'	b	b'		c	
마디	1~7	8~15	16~21	22~27	28~30	31~43	44~58
조성	e	e	G	G	d→C	C→e	e

적당히 느리게(*Ziemlich Langsam*) 연주되는 2/2박자의 e단조 곡이

다. 왼손의 옥타브는 성당에서 들려오는 오르간 소리를 연상하며 경건하고 성스럽게, 오른손의 부점리듬은 고르고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라인강의 물결이 출렁이는 것을 표현하듯이 하나의 긴 호흡으로 이어 준다.

제 4~7마디 하행하는 왼손 옥타브는 노래와 함께 하면서 장엄하고 깊이 있는 톤으로 표현해 준다. (악보 14)

<악보 14> 제 1~8마디

라인강 성스러운 강물 그 물결 속에 비치고 있네



앞부분이 멀리서 바라본 라인강을 묘사했다면 제 16~20마디는 G장조로 바뀌면서 성당 안에 들어서 초상화를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악상 또한 *p*로 바뀌고 반주부의 리듬형태도 부점리듬으로 성악성부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 오른손이 저음부에서 옥타브 위로 올라오면서 주인공의 시선이 라인강에서 성당으로, 성당안의 초상화로 옮겨지고 있다.

제 21~23마디의 오른손 액센트는 거친 삶을 표현해 주며 제 27~30마디는 잦은 화성변화로 반음계적 하행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른손 내성변화를 잘 느끼며 투명한 색채감으로 ‘내 삶에 비춰주는 다정한 빛’

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빛이 조금씩 스며드는 것 같이 표현하도록 한다. (악보 15)

<악보 15> 제 16~31마디

그 성당에는 황금가죽에 그려진 초상화 하나 있네  
 그 초상화 내 거친 삶에 다정한 빛을 비춰 주네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vocal and piano piece. It consists of three systems of music. The first system starts at measure 17 and ends at measure 21. The second system starts at measure 22 and ends at measure 26. The third system starts at measure 27 and ends at measure 31. The lyrics are in German and Korean.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steady eighth-note bass line and a more active treble line with chords and melodic fragments.

17  
 Im Dom da steht ein Bildnis, auf goldenem Leder gemalt;

22  
 in meines Lebens Wildnis hat's freundlich hineingestrahlt.

27  
 trahlt.

제 35~39마디까지 왼손 옥타브 *syncopation*과 *accent* 로 자신이 사

랑하는 여인과 성당 안의 초상화가 똑같이 닮은 것을 보고 충격적인 심경을 표현하듯이 놀라움을 담아주고 이때 오른손 진행은 눈, 입술, 뺨 초상화의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하듯이 동형진행을 거듭하면서 차츰 상행할 때마다 점점 감정적으로 커가듯이 제 39마디 오른손 윗성부 G음에까지 도달하게한 후 다시금 가라 앉히도록 한다. (악보 16)

<악보 16> 제 35~42마디

눈과 입술, 두 뺨이 내 사랑의 모습을 꼭 닮았네

die Au - gen, die Lip - pen, die Lip - pen, die Wäng - lein, die

glei - chen der Lieb - sten ge - nau.

사랑의 기쁨 편에서 마지막 곡으로 비교적 긴 후주가 있는데 성악선

울의 마지막 음이 미완결 되는 것을 반주가 이어 받아 완결시켜 준다.

성악선율이 다 전하지 못한 시상의 감정을 피아노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제 44~50마디의 왼손 옥타브는 *opening*때의 장엄한 느낌을 되살려 표현해 주고 왼손 당김음으로 하행하는, 거둬지는 동형진행과 오른손의 부점리듬은 아직 초상화와 자신의 애인이 너무 닮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연상하며 연주한다.

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랑으로 인한 그리움, 소망, 정열, 환상, 희열, 기쁨 등으로 나타난 감정을 조용히 가라앉히듯이 마지막 3마디는 하행하면서 점점 느리게 끝을 맺는다. (악보 17)

무거운 노래 탓인지 가볍고 높은 음성에 적당하지 않은 곡이다.<sup>19)</sup>

<악보 17> 제42~58마디

7. <제 7곡> Ich grolle nicht (나 원망하지 않으리)

19) Sergius Kagen, 『Music for the voice』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1968), pp. 341-344

1) 시의 원문 및 번역

Ich grolle nicht, und wenn das Herz auch bricht, Ewig verlorn'es Lieb! Ich grolle nicht. Wie du auch strahlst in Diamantenpracht, Es fällt kein Strahl in deines Herzen Nacht, Das weiß ich längst. Ich grolle nicht, und wenn das Herz auch bricht, Ich sah dich ja im Traume, Und sah die Nacht in deines Herzen Raume, Und sah die Schlang', die dir am Herzen frißt, Ich sah, mein Lieb, wie sehr du elend bist. Ich grolle nicht,	나 원망하지 않으리, 이 마음 무너질지라도 영원히 사라진 사랑아 나 원망하지 않으리 너 비록 다이아몬드처럼 빛날지라도 네 마음속의 밤을 비추지는 못하네 그걸 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네. 나 원망하지 않으리, 이 마음 무너질지라도 나 꿈속에 너를 보았네 네 마음 속의 밤을 보았고 네 마음을 파 먹는 뱀을 보았지 내 사랑아 내 너의 가련함을 보았네. 나 원망하지 않으리,
--	--

2) 반주연구

너무 빠르지 않은(*Nicht zu schnell*) 4/4박자, C장조곡이다.

시인은 애인에게 버림 받았음을 발견하고 지금까지의 감미롭던 사랑의 노래는 일체 흘러간 추억이 되어 버리고 시인의 탄식이 폭발하면서 이 연가곡의 절정을 이룬다. 부단히 던져지는 화음에 「나 원망하지 않으리」하는 이성과의 어긋나는 감정의 변민이 들리는 듯 하다.<sup>20)</sup>


이 곡의 구성을 도표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표 7>

구성	A		A'	후주
	a	b	a'	
마디	1~12	13~18	19~33	34~36
조성	C	a→b→c	C	C

20) 세광편집국, 앞의 책, p. 461

노래가 시작되는 「Ich grolle nicht」 부분은 절제된 *mf*로 시작함으로써 노래의 극적 절정의 체계에 강한 효과를 주게 되며, 제 30~32마디 끝나는 부분의 「Ich grolle nicht」 반복 부분은 강하고 눈물이 날만큼 감정이 묻어 나오는 부분<sup>21)</sup>으로 셈여림을 처음에는 *mp*와 *f*로 서로 대조되게 표현한다.

오른손에 시종일관 지속되는  리듬은 심장의 고동소리를, 왼손의 2분음표는 감정의 억제를 표현한다는 생각을 갖고 연주한다.

제 4~7마디 *bass*의 C→B→A→G→F→E→D→C로의 긴 하행선율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절망적인 느낌을 담아 표현해 준다. (악보 18)

<악보 18> 제 1~8마디

나 원망하지 않으리 이 마음 무너질지라도  
영원히 사라진 사랑아!



1

*mf*

Ich grolle nicht, und wenn das Herz auch bricht,

*mf*

5

e - wig verlor' - nes Lieb, e - wig verlor' - nes Lieb!

제 13~18마디에서는 왼손 *bass*에 있어서 *f*전율과 성악성부의 음이

21) Sergius Kagen, 앞의 책, pp. 341-344.

일치하면서 상승할 때마다 이성과 감정의 흔들림이 엇보이도록 긴장감을 주고 제 16~18마디에서 제 16마디는 가사를 같이 음미하며 *tenuto* 하 듯 *rit.* 해준 후 제 17마디부터는 *a tempo* 해주면서 멀리서 들려오던 소리가 가까이 들리듯 차츰 *cresc.*한다. (악보 19)

<악보 19> 제 13~18마디

너 비록 다이아몬드처럼 화려하게 빛날지라도  
 네 마음 속의 밤을 비추지는 못하네.  
 그걸 난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네

제 24~29마디까지는 긴 호흡으로 *build up* 시켜 절정에 달하도록

하며 이때 가장 격정적인 감정표출이 나타나는데 역시 반주 *bass*는 하행하고 *cresc.*를 동반하여 성악성부 최고음 A까지 사용하고 있다.

제 27마디의 최고음 A로 가사 ‘Herzen(마음)’을 노래한 후 G→F→E→D→C로 하행한 제 30마디에서 *f*로 점차로 *recitativo*를 통해서 가사 ‘Ich grolle nicht’를 또박또박 강조하여 *rit.*와 *cresc.*로 진행함으로써 더이상 원망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함께 반어적으로 잊을 수 없는 그리움을 표현한다.

제 33~36마디까지는 원망하지 않으리라는 감정의 폭을 한층 더 넓혀가면서 *cresc.*해주고 후주의 맨 마지막 부분은 *♩*를 *f*로 세 번 처리함으로 “나 원망하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결연하게 표현해 준다.

(악보 20)

<악보 20> 제 24~36마디

네 마음 속의 밤을 보았고 네 마음을 파 먹는 뱀을 보았지  
내 사랑아 내 너의 가련함을 보았네.  
나 원망하지 않으리, 나 원망하지 않으리,

24 und sah die Nacht in deines Herzens Rau- mo, und sah die

27 *cresc.* Schlang; die dir am Her- zen frist, *ritard.* ich sah, mein

*cresc.* *ritard..*

29

Lieb, wie sehr du e...lend bist. Ich gro...le nicht, ich gro...le

32

nicht.

8. <제 8곡> Und wüssten's die Blumen, die kleinen

(작은 꽃들이 안다면)

1) 시의 원문 및 번역

Und wüssten's die Blumen, die kleinen,	작은 꽃들이 안다면
Wie tief verwundet mein Herz,	내 마음에 깊은 상처 있음을,
Sie würden mit mir weinen,	그들은 나와 함께 울어줄 텐데,
Zu heilen meinen Schmerz.	나의 고통을 치유하도록.
Und wüssten's die Nachtigallen,	밤피꼬리들이 안다면,
Wie ich so traurig und krank,	내가 얼마나 슬프고 아픈지,
Sie ließen fröhlich erschallen	그들은 즐겁게 울려 퍼지게 하리라
Erquickenden Gesang.	생기를 불어 주는 노래를
Und wüssten's sie mein Wehe,	그들이 내 비애를 안다면,
Die goldenen Sternlein,	황금빛 작은 별들이
Sie kämen aus ihrer Höhe,	하늘에서 내려와
Und sprächen Trost mir ein.	나를 위로해 줄 텐데.
Sie alle können's nicht wissen,	그 모두들 알지 못하리,
Nur Eine kennt meinen Schmerz;	오직 한 여인만이 내 고통 알리라.
Sie hat ja selbst zerrissen,	바로 그녀가 찢어 놓았네,
Zerrissen mir das Herz.	내 마음을 찢어 놓았네.

2) 반주 연구

여리게 시작되는 2/4박자, a단조 곡이다.

제 7곡의 분노가 어느새 깊은 슬픔으로 바뀌어 실연의 아픔을 혼자  
너까리듯이 섬세한 피아노의 반주를 타고 노래하고 있다. 선율은 항상  
하강하려고 하고 위로를 기다리는 어린애와 같은 슬픔이 곡을 일관하  
고 있다.<sup>22)</sup>

---

22) 세광편집국, 앞의 책 p. 461

이 곡의 구성을 도표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표 8>

구성	A		A'		후주
	a	a'	a''	b	
마디	1~8	9~16	17~24	25~32	33~37
구성	a→F→a	a→F→a	a→F→a	d→F→a	a

원문에는 빠르기 표시가 없지만, 내부 불안에 이끌리듯이 증가하는 템포로 어림잡아 M.M. ♩=66으로 연주한다.<sup>23)</sup>

성악가와의 정확한 호흡이 특히 더 요구되며, 처음 *p*의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이 곡은 악절형태가 똑같은 8마디 단위의 음형이 3번 반복되는 특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32분음표가 정교하고 섬세하게 하행하는 선율은 상처받은 시인의 슬픔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빠른 음형은 작은 꽃의 느낌을 담아 자잘한 움직임으로 2마디 단위씩 한 프레이징으로, 수채화의 투명한 느낌으로, 세부적인 명확성보다는 전체적인 느낌으로 표현되도록 한다.

연속되는 *p*의 빠르고 섬세한 선율의 흐름으로 성악부와 반주부의 일치감을 특히 강조하는 곡이다.

제 1~8마디는 성악부와 함께 2마디 단위의 동형진행을 하고 제 5마디에서 보면 성악선율의 G<sup>#</sup>음 부분에서 반주부는 프레이즈를 맺는 특이한 구조를 보이는데 이때 프레이징의 조화로운 연결을 필요로 하는

23) Sergius Kagen, 앞의 책, pp. 341-344

반주의 흐름은 시상의 표현에 중요한 음악적 테크닉을 요구한다.  
 (악보 21)

<악보 21> 제 1~8마디

작은 꽃들이 안다면 내 마음에 깊은 상처 있음을,  
 그들은 나와 함께 울어줄 텐데, 나의 고통을 치유하도록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hree systems, each with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key signature has one flat (B-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3/4.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steady eighth-note pattern in the right hand and a more complex rhythmic pattern in the left hand. The lyrics are in German and are written below the vocal line.

System 1 (Measures 1-2):  
 Und wüß - ten's die Blu - men, die klei - nen, wie

System 2 (Measures 3-4):  
 tief ver - wun - det mein Herz, sie wür - den mit mir

System 3 (Measures 5-6):  
 wei - nen, zu hei - len mei - nen Schmerz.

제 9~23마디는 앞부분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부분이

혼자만의 바람을 읊조리듯 표현했다면 제 24~29마디는 그 모두가 알지 못하고 오직 한 여인만이 내 고통을 알리라는 현실로 돌아와 비통함에 빠진 시인의 심정을 묘사한 듯 하다.

반주부 역시 앞부분과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제 24~25마디에서 오른손과 왼손의 외성은 A음을 지속하고 내성은 32분음부가 계속되다가 제 26마디는 성악 선율을 다시 한번 설명하듯 반주가 이어 받는다. (악보 22)

<악보 22> 제 24~30마디

그 모두들 알지 못하리, 오직 한 여인만이 내 고통 알리라.  
바로 그녀가 찢어 놓았네,

제 30~32마디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며 너무나 괴로워하며 내 마

음을 찢어놓은 여인을 원망하는 마음을 성악 선율과 함께 강조하는데 특히 제 31마디 반주부에서 *sf*를 마치 찢어지듯이 강하게 표현해 준다.

후주에 이르러 계속 반복되던 악절에서 벗어나 셋잇단 음표의 전혀 새로운 음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폭을 넓혀가며 상행했다가 다시 좁히며 하행하는 선율을 반복하는 오른손과 왼손의 절도있는 리듬을 통해 찢어지는 이별의 슬픔을 추스르지 못하는, 그녀에 대한 원망섞인 시인의 감정을 복합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악보 23)

<악보 23> 제 30~37마디

내 마음을 찢어 놓았네

30 ritard.  
zer\_ris\_sen mir das Herz.  
a tempo  
ritard.

34

<제 9곡> Das ist ein Flöten und Geigen(이것은 플룻과 바이올린)

1) 시의 원문 및 번역

Das ist ein Flöten und Geigen,	이것은 플룻과 바이올린 소리,
Trompeten schmenttern darein,	그곳엔 트럼펫 소리도 울려 퍼지네.
Da tanzt wohl den Hochzeitsreigen	거기서 결혼식 운무를 추고 있겠지
Die Herzallerliebste mein.	진정 사랑한 내 여인이.
Das ist ein Klingen und Dröhnen,	울리며 나는 소리와 시끄러운 진동 소리,
Ein Pauken und ein Schalmeyn;	또한 북소리와 피리 소리;
Dazwischen schluchzen und stöhnen	그 사이로 흐느끼며 신음하네
Die lieblichen Engelein.	사랑스런 천사들이.

2) 반주 연구

이 곡은 3/8박자의 d단조 곡으로 이 연가곡 중 가장 긴 19마디의 후주를 가진 유절가곡이다.

왈츠풍이나 실연한 젊은이가 그의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 축하의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며 비애에 찬 감정을 묘사하므로 너무 빠르지 않게 (*Nicht zu rasch*) 하는 것이 좋다.

셈여림은 축제적인 분위기와 그것을 지켜보는 젊은이의 처절한 시비가 엇갈리듯이 *f*와 *p*가 계속 반복된다.

이 곡의 구성을 도표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표 9>

구성	전주	A	간주	B	간주	A'	간주	B'	후주
		a		b		a'		b'	
마디	1~4	5~15	16~20	21~31	32~38	39~49	50~54	55~65	66~84
조성	d	d→F	F→g	g→B <sup>b</sup>	d	d→F	F→g	g→B <sup>b</sup>	d→g→D

반주는 피아노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는 왈츠곡으로 오른손은 신랑 신부가 신나게 돌아가며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왼손은 혼례예식 후의 들뜨고 축제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sup>24)</sup>

반주는 완전히 성악부와 독립되어 나타난다. 왼손 연주의 부조화적이고 불안한 댄스리듬은 오른손 연주의 끊임없는 16분음표와 충돌하는데 이것은 그의 사랑의 결혼식춤에 대한 시인의 고통과 비참함을 전달하는 것이다.<sup>25)</sup> 계속 반복되는 리듬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노래에 필요한 엄격함을 주고 있다.

제 1~8마디까지는 동형 진행적 변화를 하고 있으며 플룻과 바이올린의 섬세한 소리를 표현하듯 오른손이 유연하게, 둥글둥글하게 끊임없이 흐르게 하고 왼손 *bass*는 A음으로 마치 북소리를 연상케 해준다.

제 8마디에서 *cresc.*하여 제 9~15마디까지 트럼펫 소리를 연상하면서 이전보다는 강하게(*f*), 이때 *bass*는 D→G→C→F→B<sup>b</sup>→G→C로 큰 폭으로 변화를 하면서, 성악선율과의 폭도 더 넓어지면서 널리 울려 퍼지는 모습

24) 강은미, 「Schumann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 (Dichterliebe) 작품 48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992), p. 24

25) Lorraine Gorrell, 심송학 역, 「19세기 독일가곡」 (서울 : 음악춘추사, 1998), p. 188

을 그려준다. (악보 24)

<악보 24> 제 1~16마디

이것은 플룻과 바이올린 소리,  
그 곳엔 트럼펫 소리도 울려 퍼지네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hree systems, each with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B-flat and E-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3/8. Measure numbers 1, 6, and 11 are indicated in boxes above the vocal staves.

System 1 (Measures 1-5):  
Vocal line: Starts with a rest, then "Das ist ein".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piano (*p*) dynamic and a melodic line in the right hand with a slur over measures 2-5.

System 2 (Measures 6-10):  
Vocal line: "Flö - ten und Gei - - - gen, Trom - pe - ten schmet - tern dar -".  
Piano accompaniment: Continues with a melodic line in the right hand and chords in the left hand.

System 3 (Measures 11-16):  
Vocal line: "ein, Trom - pe - ten schmet - tern dar - ein;".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more active melodic line in the right hand and chords in the left hand.

제 1~16마디가 활기찬 결혼식 분위기를 묘사하듯이 외부적 상황을 *mf*

와 고음으로 표현했다면 제 17~24마디는 시인의 내면을 그리듯 *p*와 저음으로 사랑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악보 25)

<악보 25> 제 17~28마디

거기서 결혼식 운무를 추고 있겠지 진정 사랑한 내 여인이

앞부분과 같은 형태가 제 65마디까지 전개되고 있는데 ‘울리며 나는

소리와 시끄러운 진동 소리, 또한 북소리와 피리 소리; 그 사이로 사랑스런 천사들이 흐느끼며 신음하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곡 시작이 d단조의 V 화음으로 시작되어 끝부분은 원조 d단조가 아닌 D장조에 이르게 되는데 9마디 동안 지속된다. 이는 시 내용이 결혼식이 끝난 뒤의 즐거운 무도회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인데 제 68~72마디는 앞의 전주부분과 같은 형태로 플룻과 바이올린을 연상하며 표현해주고 제 72마디 셋째 박부터 액센트(>)를 강조해 표현하면서 새로운 프레이징으로 시작한다. 이 프레이징은 제 4마디에서 끝나 제 5마디에서 새로 시작하는 앞부분의 프레이징과 다르게 표현된 점을 유의하면서 연주하는 것이 좋겠다. 제 76~79마디까지 4번 반복은 북소리, 시끄러운 진동소리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그 사이로 천사의 흐느낌이 찾아들듯이 표현해 주고 제 77마디부터 마지막마디까지 점점 지쳐 천사의 흐느낌 조차 사라지듯 멀어져 간다는 생각으로 표현해준다. (악보 26)

<악보 26> 제 68~84마디

68

74

79

*dimin.*

*pp*

10. <제 10곡> Hör' ich das Liedchen Klingen(노래소리 들려온다)

1) 시의 원문 및 번역

Hör' ich das Liedchen Klingen	노래소리 들려온다.
Das einst die Liebste sang,	그 옛날 내 님의 노래소리가,
So will mir die Brust zerspringen	내 가슴을 메어지게 하니
Von wildem Schmerzendrang	격한 고통의 압박이
Es treibt mich ein dunkles Sehnen	어두운 동경이 치밀어 올라
Hinauf zur Waldeshöh',	나를 숲속의 봉우리에 오르게 하네
dort löst sich auf in Tränen	그 곳에서 눈물이 되어 녹아내리네
Mein übergroßes Weh'.	나의 말할수 없는 고통이

2) 반주 연구

이 곡은 느린(*Langsam*) 2/4박자, g단조의 고요한 노래이다.

노래의 선율은 매우 민요적이지만, 소박함으로 해서 한층 마음에 파고드는 슬픔을 가지고 있다.

이 곡의 구성을 도표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10>

<표 10>

구성	전주	A		B		후주
		a	b	c	d	
마디	1~4	5~8	9~12	13~16	17~20	21~30
조성	g	g	c	B <sup>b</sup>	g	g

결말부분에서 위안이 되는 꿈처럼 나를 감쌌던 꿈꾸는 분위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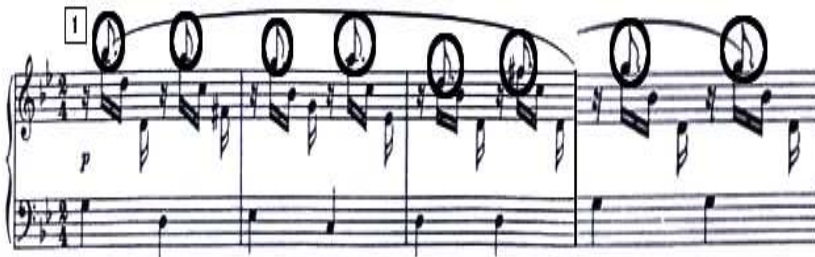
모진 현실로 바뀐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는 자유가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이 사랑에 의해 파괴된 꿈이다.<sup>26)</sup>

이 곡은 부드럽고 흐르는 톤으로 어떤 감상도 없이 불러야 한다.

느린 아르페지오의 반주 리듬에 의한 시상이 감정표현으로 몰입적 역할을 이끌어 내고 있는 곡으로 시인의 초췌한 심정을 그리고 있는데, 왼손선율의 하행으로 감정의 요동을 의식케 하는 표현을 해준다.

오른손 윗성부의 선율선은 다른 음들보다 조금 더 분명히 부각시켜서 앞으로 나올 노래를 예시해 주어야 한다.(악보 27)

<악보 27> 제 1~4마디



제 5~8마디에서 반주부 오른손 첫음은 성악선율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왼손 bass음에서 이어받는 느낌으로 오른손과 왼손을 하나의 묶음으로 표현한다.

제 9~12마디는 반주부가 c단조로 바뀌면서 억누를 수 없이 밀려드는 고통을, 오른손의 당김음으로 E<sup>b</sup>→D→C→D<sup>b</sup>→G→B→C로 진행시키면서 변화하는 음정에 하나하나 고통을 실어 연주하도록 한다.

(악보 28)

26) Lotte Lehmann, 앞의 책, p. 146

<악보 28> 제 5~12마디

노래소리 들려온다. 그 옛날 내 님의 노래소리가,  
내 가슴을 메어지게 하니 격한 고통의 압박이

제 13~19마디는 앞부분과 비슷한 반주형태로 진행하고 ‘엄청난 슬픔이 언덕에서 눈물이 되어 녹아 버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주부분에서는 뚜렷한 리듬선율을 동반한 상행선율의 흐름이 감미로운 독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11마디에 달하는 이 독주부분은 시적 감성의 연결을 이끌어 내고 있는 슈만의 의도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다성적 성부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는 복잡하고 고통스런 심경을 묘사하는 듯하다. 제 24마디부터 복잡한 심정이 여러 성부의 복잡하게 얽힌 진행을 통해 더욱 절정을 향해 가는데 특히 오른손 내성의 반음계적 상행선율을 통해 *cresc.*로 유도하여 제 26마디의 왼손 *sf*에 이르

면 고뇌하듯 의미를 부여하여 표현해 주며 이때 오른손 선율은 서서히 체념해 가는 시인의 모습을 그려준다.

슬픔이 눈물이 되어 녹아버리듯 *decresc.*한 후 제 28마디 왼손으로 계속되는 하행선율은 점점 느려지다가(*rit.*) 제 29마디에 등장하는 당김음 D는 마치 시인의 아쉬움, 미련을 표현하듯이 체념적인 소리로 지속해 준다. (악보 29)

<악보 29> 제 21~30마디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21 to 30.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staves. The first system starts at measure 21 and ends at measure 25. The second system starts at measure 26 and ends at measure 30. The score is written for piano, with a treble clef on the upper staff and a bass clef on the lower staff.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B-flat and E-flat).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music features a complex texture with many sixteenth and thirty-second notes. A *ritard.* marking is present above the staff in measure 29, indicating a gradual deceleration. The final measure (30) features a prominent, sustained D note in the bass line, which is described in the text as a 'pulling note' (당김음).

11. <제 11곡> Ein Jüngling liebt ein Mädchen

(한 젊은이 한 처녀를 사랑했는데)

1) 시의 원문 및 번역

Ein Jüngling liebt ein Mädchen.	한 젊은이 한 처녀를 사랑했는데,
Die hat einen andern erwählt;	이 처녀는 다른 남자를 선택했네.
Der andre liebt eine andre,	그 남자는 또 다른 처녀를 사랑하여
Und hat sich mit dieser vermählt.	그녀와 결혼하였네.
Das Mädchen nimmt aus Ärger	화가 난 그 처녀는 받아 들였네,
Den ersten besten Mann,	훌륭한 첫 남자를,
Der ihr in den Weg gelaufen;	길에서 그녀에게 마주치는,
Der Jüngling ist übel dran.	그 젊은이는 이 일로 괴로워하네.
Es ist eine alte Geschichte,	이것은 오래된 이야기지만
Doch bleibt sie immer neu;	여전히 새로운 일이기도 하지.
Und wem sie just passieret,	이 일에 부딪히는 자,
Dem bricht das Herz entzwei.	그 가슴은 쪼개지고 말리라.

2) 반주 연구

슈만다운 풍자를 지닌 2/4박자, E<sup>b</sup>장조의 곡이며 원고에서는 *Allegro*가 표시되어 있다.<sup>27)</sup>

특징 있는 당김음으로 강해지고 있으나 스타일은 다분히 슈베르트적이며 발라드풍이기도 하다.

이 곡의 조성 E<sup>b</sup>장조는 제 10곡 g단조의 나란한 조인 B<sup>b</sup>장조의 버금 딸림조이다.

지금까지의 시인의 사랑의 괴로움을 여기서는 어딘지 야유하는 듯 제 3자적 입장에서 이 시인을 보고 있는 것 같다.<sup>28)</sup>

27) Sergius Kagen, 앞의 책, pp. 341-344

그러므로 주관적인 가창이 요구되던 지금까지의 노래와는 달리 다분히 객관적인 연주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 곡의 구성을 도표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표 11>

구성	전주	A	간주	B	C	후주
		a		b	c	
마디	1~4	5~12	13~16	17~24	25~32	33~46
조성	$E^b$	$E^b$	$B^b$	$B^b$	$E^b \rightarrow G^b \rightarrow E^b$	$E^b$

반주부분은 풍자적인 시의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앞의 곡과는 반대로 누앙스가 경쾌하고 가볍고 율동적인 당김음을 왼손에 사용하고 오른손은 약박에 *accent*를 사용해 당김의 느낌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다.

이때 왼손 ( $B^b \rightarrow E^b$ ), ( $B^b \rightarrow D$ ), ( $F \rightarrow B^b$ ) 이어지는 ( $E^b \rightarrow B^b$ )는 서로 엇갈리는 사랑을 풍자적으로 묘사하는 듯한 피아노의 음형을 경쾌한 터치로 그 느낌을 살려주도록 한다. 서로 주고 받는 듯하나 결코 일치되지 않는 양손의 하행음형 ( $B^b \rightarrow E^b$ ), ( $E^b \rightarrow B^b$ ) 등을 약박 당김음 못지않게 잘 부각시켜 주어야 한다. (악보 30)

<악보 30> 제 1~8마디

28) 세광편집국, 앞의 책, p. 463

한 젊은이 한 처녀를 사랑했는데  
이 처녀는 다른 남자를 선택했네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song.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music. The first system starts with a measure number '1' in a box. The vocal line (treble clef) begins with a rest, followed by the lyrics 'Ein Jüngling liebt ein'. The piano accompaniment (grand staff) starts with a *mf* dynamic marking. The second system starts with a measure number '6' in a box. The vocal line continues with the lyrics 'Mädchen, die hat einen Andern erwählt,'. The piano accompaniment continues with the same *mf* dynamic marking.

연속되는 같은 리듬꼴의 형태는 시상에 있어서 풍자적 표현의 수단으로써 그 흐름을 담당하고 있고 *phrase*의 연결 중 *rit.*의 등장은 듣는 이로 하여금 옆에서 속삭이듯이 전달되는 말처럼 사실감을 느끼게 해 주는 주요한 표현의 *point*를 제공해 주고 있다.

제 21~24마디와 제 29~31마디는 *rit.*로 노래하도록 되어 있어 가사 부분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Dem bricht das Herz entzwei(가슴은 무너져)” 부분은  $G^b$ 장조에서  $E^b$ 장조로의 전조와 감 7화음의 사용으로 슬픈 마음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악보 31)

<악보 31> 제 16~32마디

화가 난 처녀는 자신 앞에 나타난 훌륭한 첫 남자를 받아 들였네  
 그 젊은이는 이 일로 괴로워하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여전히 새로운 일이기도 하지  
 이 일에 부딪히는자 그 가슴은 쪼개지고 말리라

16

Das Mädchen nimmt aus Är - ger den er - sten be - sten Mann, der

21

ri - tar - dan - do  
 Ihr in den Weg ge - laufen, der Jüngling ist ü - bel dran. Es

25

ist ei - ne al - te Ge - schich - te, doch bleibt sie im - mer neu; und

29

ri - tar - dan - do  
 wem sie just pas - sie - ret, dem bricht das Herz ent - zwei.  
 a tempo

후주부분은 '그 가슴은 쪼개지고 말리라'를 강조하기 위해 강한

*accent*로 가슴이 쪼개지듯 표현해야 하며 마지막 2마디는 으뜸화음을 3번 울리게 함으로써 사랑을 다시 한번 풍자하듯 표현한다. (악보 32)

<악보 32> 제 33~46마디



12. <제 12곡> Am leuchtenden Sommermorgen

(햇빛 비치는 여름날 아침)

1) 시의 원문 및 번역

Am leuchtenden Sommermorgen	햇빛 비치는 여름날 아침
Geh' ich im Garten herum.	나는 정원을 걷고 있네.
Es flüstern und sprechen die Blumen,	꽃들이 속삭이듯 말하지만
Ich aber wandle stumm.	나는 말없이 걷네.
Es flüstern und sprechen die Blumen,	꽃들이 속삭이듯 말하면서
Und schau'n mitleidig mich an:	나를 안스러이 바라보네
Sei unsrer Schwester nicht böse,	우리 누이에게 화내지 마세요
Du trauriger, blasser Mann.	그대 슬프고 창백한 자여.

2) 반주 연구

이 곡은 적당히 느린(*Ziemlich Langsam*) 6/8박자, B<sup>b</sup>장조의 통절가 곡이다. 제 11곡 E<sup>b</sup>장조와는 딸림조 관계로 이제까지 거의 대부분이 버금딸림조였던 것에 비해 처음으로 딸림조가 사용되었다.

이 곡의 구성을 도표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표 12>

구성	전주	A			간주	A'		후주
		a	간주	b		a'	c	
마디	1~2	3~6	7	8~11	12	13~16	17~20	21~30
조성	B <sup>b</sup>	B <sup>b</sup>	B <sup>b</sup>	B <sup>b</sup> →B→B <sup>b</sup>	B <sup>b</sup>	B <sup>b</sup>	G→B <sup>b</sup>	B <sup>b</sup>

가사 중에는 치유시키는 관념인 용서가 소개된다.<sup>29)</sup>

외로움과 고통에 짓눌린 창백한 시인이 정원을 거닐고 있는 모습이 입체감 있게 묘사되었으며 고요히 강물이 흐르듯이 연주되는 *Arpeggio*음형은 마치 여름날 아침에 햇살이 퍼지는 광경을 보는 듯하다.<sup>30)</sup>

아름다운 전주는 독일 6화음(German 6th)으로 부드러운 분위기가 곡 전체에 흐르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연민에 빠진 듯한 슬프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일관되고 있으며 시의 감미로움 자체를 선율적으로 극대화시킨 아름다운 곡이다.

햇살이 내리 비치듯 아래로 부드럽게 퍼지도록, 그 햇살 아래로 한가로이 정원을 걷는 모습을 연상시키며 여유롭게 표현해 준다. 성악선율을 들으며 느껴주면서 *bass*와 *top line*이 마치 대선율로 노래하며 3중주하듯이 연주한다.

싱크페이션처럼 지속되는 오른손 윗소리는 쓰다듬듯 부드럽게 테누토하면서 표현해 주도록 한다. (악보 33)

<악보 33> 제 1~7마디

---

29) Carol Kimball, 「 Song 」 (Washington : Redmond, 1996), p. 88

30) Lotte Lehmann, 앞의 책, p. 147

햇빛 비치는 여름날 아침 나는 정원을 걷고 있네

제 17~20마디는 꽃들이 말하는 부분을 조금 더 여유있는 (*Langsamer*) 템포와 좀더 작아진 *pp*의 셈여림으로 앞부분과 구분하여 표현해야 하며 제 19~20마디는 *rit.*로 좀더 느려지면서 피아노의 독일 6화음을 이번에는 다소 강조하면서 슬프고 창백한 시인의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악보 34)

<악보 34> 제 17~20마디

우리 누이에게 화내지 마세요 그대 슬프고 창백한 자여

17 *Langsamer*  
*pp*  
Sei uns - rer Schwe - ster nicht bö - se, du

19 *ritard.*  
trau - figer, blas - ser Mann.

후주의 제 20~22마디는 여름날 아침의 햇살을, 제 23~26마디는 꽃들이 속삭임을 연상하면서 제 27~30마디까지는 시인의 슬픔이 더 깊게 침묵으로 빠져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며 반복적이면서 지속적인 음형을 마치 대화하듯 표현해 주도록 한다. (악보 35)

<악보 35> 제 21~30마디



13. <제 13곡> Ich hab' im Traum geweinet(나는 꿈속에 울었네)

1) 시의 원문 및 번역

Ich hab' im Traum geweinet,  
 Mit träumte, du lägest im Grab.  
 Ich wachte auf, und die Träne  
 Floß noch von der Wange herab.  
 Ich hab' im Traum geweinet,  
 Mir träumt', du verließest mich.  
 Ich wachte auf, und ich weinte  
 Noch lange bitterlich.  
 Ich hab' im Traum geweinet,

나는 꿈속에 울었네,  
 그대가 무덤에 누워 있었네.  
 잠에서 깨어도, 그 눈물은  
 뺨을 타고 계속 흘러 내렸네.  
 나는 꿈속에 울었네,  
 그대가 나를 버렸네.  
 잠에서 깨어도, 나는 울었네,  
 오래도록 비통하게.

나는 꿈속에 울었네,  
 Mir träumte, du wärst mir noch gut. 그대가 나를 여전히 좋아했네.  
 Ich wachte auf, und noch immer 잠에서 깨어도, 그래도 여전히  
 Strömt meine Tränenflut. 내 눈물은 억수같이 흘렀네.

2) 반주 연구

고요한(*Leise*) 6/8박자,  $e^b$  단조의 유절가곡이다.

이 곡의 조성  $e^b$  단조는 제 12곡의 원조인  $B^b$  장조의 버금딸림조( $E^b$ )와 같은 으뜸음조의 관계이다.

이 곡의 구성을 도표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표 13>

구성	A		A'		간주	B	후주
	a	b	a	b'		c	
마디	1~6	7~11	12~17	18~22	23~24	25~32	33~38
조성	$e^b \rightarrow c^b$	$e^b$	$e^b \rightarrow c^b$	$e^b$	$e^b$	$e^b \rightarrow a^b$	$a^b \rightarrow e^b$

<시인의 사랑> 전 16곡 중 가장 풍부한 인간성을 지닌 최고 수작으로 배반한 애인에게 눈물을 보내는 인간미와 애수감이 듣는 사람의 가슴을 파고 든다.

한밤중 꿈에서 깨어나 눈물 흘리는 자신에게 또 새로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가련함은 고전 속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서는 동양인들의 전통 속에서도 자라 온 것으로서 <시인의 사랑> 이 유난히 우리들에게 애호되는 것도 이런 점에 있을지도 모른다.<sup>31)</sup>

무반주처리로 고성에서 마치 질문을 던지듯 그에 화답이라도 하듯 저성에서 등장하는 반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비가 이색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반주부의 *staccato*코드는 양손의 변화하는 아랫선율이 들리도록 하면서 너무 짧지 않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듯 감정을 가지고 표현하도록 한다.

무반주의 *recitativo*적인 선율과 단순한 리듬의 반주의 주고 받음이 마치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듯한 느낌과 애처로움마저 느끼게 한다.

꿈속을 거닐 듯 *p*와 *pp*로 여리게 연주되며 극적인 효과를 많이 상실한 곡이다.<sup>32)</sup> (악보 36)

<악보 36> 제 1~7마디

나는 꿈속에 울었네, 그대가 무덤에 누워 있었네

31) 세광편집국, 앞의 책, p. 464

32) Sergius Kagen, 앞의 책, pp. 341-344

제 22마디부터는 성악선율이 동음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더욱 반주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부분과 달리 반주가 먼저 노래를 제시한 후 성악선율이 이어 받는 형태를 취하는데 *cresc.*와 *decresc.*를 감정적으로 *build up*해서 준비시켜 제 32마디까지 피아노가 단계적으로 감정을 끌어 올려 주어 극에 달하였다가 *sf*에 이르게 한다. 3절중 마지막절에 화성의 전모가 드러나 넘쳐흐르는 눈물을 *sf*로 피아노가 받고 있는 부분은 그야말로 멋진 처리이다.<sup>33)</sup>

제 34마디 1마디의 *pause*(침묵의 적막함)로 극적 대비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유난히 *pause*가 많은 후주는 적막함이 더욱 슬픔을 자아내듯 표현하도록 한다. (악보 37)

<악보 37> 제 22~33마디

나는 꿈속에 울었네, 그대가 나를 여전히 좋아했네.

잠에서 깨어도, 그래도 여전히 내 눈물은 억수같이 흘렀네

33) 세광편집국, 앞의 책, p. 464

30 ④ ⑤

im . mer strömt mei . ne Trä . nen . flut.

The first system of music consists of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vocal line is in a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three flats (B-flat, E-flat, A-flat) and a common time signature. It features a melodic line with a circled '4' above the first measure and a circled '5' above the second measure. The lyrics 'im . mer strömt mei . ne Trä . nen . flut.' are written below the vocal line. The piano accompaniment is in a grand staff (treble and bass clefs) and features a complex harmonic texture with many beamed notes and a dynamic marking of *sf* (sforzando) in the right hand.

34

*pp*

The second system of music consists of a piano accompaniment in a grand staff. The vocal line is represented by a series of rests in the treble clef. The piano accompaniment is in a grand staff (treble and bass clefs) and features a complex harmonic texture with many beamed notes and a dynamic marking of *pp* (pianissimo) in the right hand.

14. <제 14곡> Allnachtlich im Traume (매일밤 꿈속에서)

1) 시의 원문 및 번역

Allnachtlich im Traume seh' ich dich, Und sehe dich freundlich grußen, Und laut aufweinend sturz ich mich Zu deinen suen Fuen. Du siehst mich an wehmutiglich Und schuttelest das blonde Kopfchen; Aus deinen Augen schleichen sich Die Perlentranentropfchen. Du sagst mir heimlich ein leises Wort Und gibst mir den Strau von Cypressen. Ich wachte auf, und der Strau ist fort, Und's Wort hab' ich vergessen.	매일밤 꿈속에서 나 그대를 보네. 그대가 다정히 내게 인사하면, 나는 큰 소리로 울며 몸을 숙이네 그대의 어여쁜 발 아래로. 그대는 애처롭게 나를 바라보며, 금발의 머리를 가로젓네. 그대의 두 눈에서 가만히 흘러내리네, 진주 같은 눈물방울이. 그대는 은밀하게 나직한 한마디를 건네며, 사이프러스꽃다발을 내게 주네. 내 깨어나 보니, 그 꽃다발 간 데 없고, 그 한마디도 기억할 수 없네.
---	---

2) 반주 연구

이 곡은 2/4박자, B장조의 유절가곡이다.

유일하게 조바꿈이 사용되지 않은 곡인 대신 변박(2/4→3/4→2/4)이 사용되었다.

반주가 화성적인 무게감을 가지면서 시종 성악성부와 함께 노래하는 곡으로 한숨 섞인 듯한 선율로서 체념에 가까운 청춘의 향수를 생각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 곡의 구성을 도표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

<표 14>

구성	A		간주	A'		간주	B		후주
	a	b		a'	b		c	d	
마디	1~8	9~11	12~13	14~21	22~24	25~26	27~34	35~37	38
조성	B	B	B	B	B	B	B	B	B

꿈속에서 본 연인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지만 그녀의 모습은 희미하다.<sup>34)</sup>

빈번한 부속화음의 색채가 당김음과 함께 화성의 여운이 강렬하다. 이 간소한 하모니로 지탱된 3절의 노래는 사랑의 감미로움과 슬픔을 시 이상으로 그려내고 있다. 시인이 더듬어 온 사랑의 편력은 이 제 14곡에서 종지부를 찍는 것 같다.

앞 곡에 이어지는 후편 같은 기분을 주며 지속음처럼 반복되는 제 1, 2마디 왼손의 5도 음정은 체념 섞인 무거운 걸음걸이를 연상케 해 주고 다른 곡과는 달리 노래와 오른손 멜로디가 당김음 리듬과 함께 *unison*하는 것 이외의 극적인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이 곡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셈여림은 *p*로 연주되지만 왼손의 반주는 페달의 지속음 효과로써 특히 무게를 실어서 연주되어야 한다.

제 1~4마디는 꿈속에서 그대를 본 행복감을, 제 5~8마디는 다정하게 인사하는 그대를 연상하며 표현해 주고 앞부분 보다 제 5~8마디는

34) Carol Kimball, 앞의 책, p. 88

앞으로 조금 진행해 나아가는 느낌을 갖도록 한다.

제 9~11마디는 너무 감정이 격해져 큰소리로 울고야 마는 시인의 흥분된 감정을 표현해 주며, “Und laut aufweinend stürz’ ich mich(나는 큰 소리로 울며 몸을 숙이네) Zu deinen süßen Füßen(그대의 어여쁜 발 아래로)”에서 보듯이 2/4박자에서 3/4박자로 변박되었음에 유의하고 *cresc.*함으로써 감정의 폭을 넓혀 현실 속 실연의 아픔을 표현해 준다.

제 11~13마디의 간주는 가사 ‘그대의 어여쁜 발 아래로’를 음미하면서 가슴 두근거리며 사랑하는 이의 발아래 몸을 숙여 엎드리듯 설레임을 담아 *cresc.*하며 나아갔다가 제 12마디의 *accent(>)*와 함께 한껏 느껴준 후 *decresc.*해준다. (악보 38)

<악보 38> 제 1~13마디

매일밤 꿈속에서 나 그대를 보네.

그대가 다정히 내게 인사하면

나는 큰 소리로 울며 몸을 숙이네

그대의 어여쁜 발 아래로.

1

All-nächtlich im Traume seh' ich dich, und se-he dich

6

freundlich, freund-lich grüßen, und laut auf-weinend stürz' ich mich zu

10

*ritard.*

dei-nen sü-Ben Fü-Ben.

제 21~26마디는 제 9~13마디와 같은 진행을 하며 가사만 “Aus deinen Augen schleichen sich(그대의 두 눈에서 가만히 흘러내리네) Die PerlenTränentröpfchen.(진주 같은 눈물방울이)”로 달라진다.

제 23마디의 하행도약 음형은 눈물방울이 떨어지듯, 제 24~26마디는 애닦은 심정을 담아 표현한다. (악보 39)

<악보 39> 제 17~26마디

금발의 머리를 가로젓네  
 그대의 두 눈에서 가만히 흘러내리네,  
 진주 같은 눈물방울이

17  
 und schüttelst, schüttelst das blonde Köpfchen; aus deinen Augen schleichen sich die

23 *ritard.*  
 Per - len - Trä - nen - tröpfchen.

제 26~34마디는 앞부분과 같은 음형을 취하고 있으므로 대등소이하  
게 다만 여기서는 *pp*로 은밀하게 한마디를 건네는 그대의 모습을 연  
상하며 표현해 준다.

제 34~38마디까지는 완전히 꿈에서 깨어 현실로 돌아왔음을 실감하  
면서 제 35~36마디는 코드를 명료하게 현실에의 자각을 표현해 주고  
제 37~38마디는 한마디도 기억할 수 없는 허탈한 심정을 담아 표현해  
준다. (악보 40)

<악보 40> 제 34~38마디

내 깨어나 보니, 그 꽃다발 간 데 없고  
그 한마디도 기억할 수 없네.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34-38. It consists of a vocal line on a single staff and a piano accompaniment on two staves (treble and bass clef). The key signature is G major (one sharp). The vocal line begins with a box containing the number '34'. The lyrics are: 'Ich wa-che auf, und der Strauß ist fort, und's Wort hab' ich ver.ges.sen.'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steady eighth-note bass line and chords in the right hand.

15. <제 15곡> Aus alten Märchen (옛날 동화 속에서)

1) 시의 원문 및 번역

Aus alten Märchen winkt es  
Hervor mit weißer Hand,  
Da singt es und da klingt es  
Von einem Zauberland;  
Wo bunte Blumen blühen  
Im gold'nen Abendlicht,  
Und lieblich duftend glühen,  
Mit bräutlichem Gesicht;  
Und grüne Bäume singen  
Uralte Melodei'n,  
Die Lüfte heimlich klingen,  
Und Vögel schmetter'n drein;  
Und Nebelbilder steigen  
Wohl aus der Erd' hervor,  
Und tanzen luft'gen Reigen  
Im wunderlichen Chor;  
Und blaue Funken brennen  
An jedem Blatt und Reis,  
Und rote Lichter rennen  
Im irren, wirren Kreis;  
Und laute Quellen brechen  
Aus wildem Marmorstein,  
Und seltsam in den Bächen  
Strahlt fort der Widerschein.  
Ach, könnt' ich dorthin kommen,  
Und dort mein Herz erfreu'n,  
Und aller Qual entnommen,  
Und frei und selig sein!  
Ach! jenes Land der Wonne,  
Das seh' ich oft im Traum,  
Doch kommt die Morgensonne,  
Zerfließt's wie eitel Schaum.

옛날 동화 속에서 손짓하네  
하얀 손으로  
그것이 노래하며, 들려주네.  
마법의 나라에 대해.  
다채로운 꽃들이 피어나네  
황금빛 저녁 햇살 속에서,  
사랑스레 향기를 내뿜는 곳  
신부의 얼굴을 하고.  
초록빛 나무들은 노래하네  
태고의 곡조를.  
미풍도 은밀히 소리내며  
새들도 재잘거리며 노래하는 곳.  
안개로 된 형상들이  
대지에서 솟아올라와  
하늘거리며 운무를 추는 곳  
경이로운 합창 속에서.  
푸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새마다 가지마다  
붉은 빛들이 달리는 곳  
어지럽게 원을 그리며.  
샘이 쿵쿵 터지고  
거친 대리석에서.  
야릇하게 넷물이  
다시 반사되어 빛나는 곳.  
아! 내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내 마음을 기쁘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했으면!  
아! 저 환희의 나라를  
나는 종종 꿈 속에서 본다네.  
하지만 아침 햇살이 비취  
헛된 거품으로 흩어 버리네

2) 반주 연구

생기 있게(*Lebendig*) 노래하는 6/8박자, E장조의 곡이다.

이 곡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시인의 즐겁고 괴로웠던 지난날의 청춘을 회고하는 노래로 모두 113마디로 된 <시인의 사랑>에서 가장 긴 노래이며 완벽한 통절가곡 형식의 사용과 리듬의 반복이 특징이다.

이 곡의 구성을 도표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

<표 15>

구성	전주	A		간주	A	간주	B			C			후주
		a	b		c		d	e	f	a'	a'	g	
마디	1~8	9~16	17~24	25~28	29~36	37~40	41~48	49~56	57~67	68~75	76~83	84~103	104~113
조성	E	E	E	G	G→B	E	B	B	C <sup>#</sup> →d →E	E	E	E	E

활발한 조바꿈이 전개되는 이 곡의 구조성은 E장조로 제 14곡 B장조와는 버금 딸림조 관계이다.

A부분은 동화속 나라에 대해서 노래하고, B부분은 동화속 나라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C부분은 현실로 돌아옴을 노래하고 있다.

공상에 잠겨 시인은 신비한 나라를 그리는데 그 곳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아무 문제도 없다. 그는 그곳에 가기를 갈망하고 그의 슬픔을 풀어낸다.<sup>35)</sup>

시인은 애써 즐겁고 괴로운 청춘의 추억을 동화의 세계를 통하여 잊으려 한다. 그러나 그 상태로 인해 흥분과 열정에서 실연의 아픔은 체

35) Carol Kimball, 앞의 책, p. 88

넘 상태로 변화하고 말며 자신의 입장을 생각한다.

이 곡은 전주에서 노래의 첫 도입부분을 예시해 주고 있는데 제 1~4마디는 옛날이야기를 시작하는 *opening ment*를 연상하며 표현해 주고 제 5~8마디는 뒤에 이어질 이야기를 예고해 주듯 표현해 준다. 이 부분은 완벽하게 2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구조이며 생기있게 시작한다. 전주를 이어받아 제 9~16마디가 전주와 같은 형태로 진행한다.

(악보 41)

<악보 41> 제 1~8마디

제 17~24마디는 반주부가 스타카토 형태로 바뀌는데 제 17~20마디는 서서히 꽃망울이 피어오르듯 화사하게 하나의 라인으로 둥글게 형상화해주고, 제 20~24마디는 향기가 배어 나오듯 살랑살랑 가볍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표현한다. (악보 42)

<악보 42> 제 16~24마디

다채로운 꽃들이 피어나네 황금빛 저녁 햇살 속에서,  
 사랑스레 향기를 내뿜는 곳 신부의 얼굴을 하고

The image shows two systems of a musical score. The first system, starting at measure 16, features a vocal line in treble clef and a piano accompaniment in bass clef. The key signature has three sharps (F#, C#, G#)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lyrics are: "wo bun - te Blu - men blü - hen im gold'-nen A - bend.licht, und". The second system, starting at measure 21, continues the vocal line and piano accompaniment. The lyrics are: "lieb-lich duf - tend glü - hen, mit bräut.-lichem Ge-sicht;".

전주에서 제시되었던 주제가 제 24마디부터 G장조로 옮겨지는데 조금 더 강하게(*f*) 태고의 곡조를 표현해 주고 다시 B장조로 전조하여 음정이 상행이동 하는데 이 부분은 새들이 재잘거림을 표현해 주도록 한다.

같은 형태가 2번씩 반복되는 구조를 보이는데 G장조부분(제 28~30마디, 제 30~32마디)을 한숨에 노래해야 하며 이어지는 B장조부분(제 32~34마디, 제 34~36마디)는 *cresc.*하면서 감정의 폭이 넓어져야 하며 역시 한숨에 노래하도록 한다. 시가 약동함에 따라 음악도 점점 강렬한 다이내믹을 요구한다. (악보 43)

<악보 43> 제 24~36마디

초록빛 나무들은 노래하네 태고의 곡조를.

미풍도 은밀히 소리내며 새들도 재잘거리며 노래하는 곳

24 und grüne Bäume

30 sin - gen ur - al - te Me - lo - dein, die Lüf - te heim - lich

34 klin - gen, und Vö - gel schmettern drein;

제 37~56마디까지는 앞부분의 형태가 다시 반복되며 제 58마디의 중 4도, 제 59마디의 단 7도를 수반한 선율 ‘쌔미 쿵쿵 터지고’는 점차 그 음정을 높여 제 66마디 최고조의 ‘아아 아아(Ach Ach)’로 들어가는 데 지금까지의 악몽을 일순간에 날려 버리는 것 같다.

본디 하이네는 ‘Ach!’를 한번만 사용했으며 이어지는 다음 행의 첫 부분에 배치하였으나 슈만은 임의로 이를 3번 사용하였고 더구나 그 위치 또한 앞 행의 끝부분에 둠으로써 B부분을 극적으로 치달은 상태에서 마무리하게 하였다.

제 57~61마디보다는 제 62~65마디가, 또 제 62~65마디보다는 제 66마디가 점점 감정의 폭이 넓어지도록 추진력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한다. (악보 44)

<악보 44> 제 57~69마디

샘이 쿵쿵 터지고 거친 대리석에서.

야릇하게 넋물이 다시 반사되어 빛나는 곳. 아!

57  
und lau . te Quel . len bre . chen aus wil . dem Marmor . stein, und seltsam in den BÄ . chen strahl

64  
fort der Wi . der . schein . . . Ach! Ach!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starting at measure 57, features a vocal line with lyrics in German and a piano accompaniment with a complex, rhythmic texture. The second system, starting at measure 64, continues the vocal line with the lyrics 'fort der Wi . der . schein . . . Ach! Ach!' and the piano accompaniment.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제 69마디부터 (아! 내 그곳으로 가서) 첫머리의 주제가 확대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앞부분이 옛 동화 속 나라를 묘사했다면 분위기를 바꾸어 희망과 바람이 머나먼 이야기가 되어 버리고 현실로 돌아오게 됨을 진지한 느낌(*Mit innigster Empfindung*)으로 표현해 준다.

(악보 45)

<악보 45> 제 69~77마디

아! 내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내 마음을 기쁘고

Mit innigster Empfindung

Ach, könnt' ich dort hin kommen, und dort mein Herz erfreun,

제 96~104마디는 모든 것이 헛된 거품이 되어 버림을 공허한 느낌을 담아 *p*의 코드 변화로 표현해 주는데 제 98마디는 페달을 떼어줌으로써 헛된 거품을 더욱 건조하게 느껴지도록 한다.

제 102마디는 모든 희망이 헛된 거품이 되어 버림을 다시 한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강조해 주고 제 103마디 성악선율이 *Adagio*로(B→E로) 5도 하행을 하고 나면 반주부 왼손이 그 다음 마디에서(B→E로) 5도 하행을 함으로써 행복한 나라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음을 표현해 주도록 한다.

제 104마디의 *fermata*( $\frown$ )는 한꺼번에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허망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충분히 공감해준 다음에 가벼운 느낌의 처음

주제를 일시적으로 되살아나듯 *a tempo*로 연주하고 제 107마디부터는 모든 것이 허무한 환영임을 알고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리면서 조금씩 거품이 하나하나 흩어지듯 *sfz*표를 통해 공백감을 주면서, 특히 마지막 4마디 제 110~113마디의 왼손을 통해 흩어져 없어져버리듯 표현함으로 마무리해 준다. (악보 46)

<악보 46> 제 96~113마디

헛된 거품으로 흩어 버리네

96 *Adagio*  
 zer. fließt's wie ei. - tel Schaum, zer. fließt's wie ei. . tel Schaum. *a tempo*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6. <제 16곡> Die alten, bösen Lieder(옛날의 그 나쁜 노래들)

1) 시의 원문 및 번역

Die alten, bösen Lieder,  
Die Träume böse und arg,  
Die laßt uns jetzt begraben,  
Holt einen großen Sarg.  
Hinein leg' ich gar manches,  
Doch sag' ich noch nicht was;  
Der Sarg muß sein noch größer  
Wie's Heidelberger Faß.  
Und holt eine Totenbahre  
Und Bretter fest und dick;  
Auch muß sie sein noch länger,  
Als wie zu Mainz die Brück'  
Und holt mir auch zwölf Riesen,  
Die müssen noch stärker sein  
Als wie der starke Christoph  
Im Dom zu Köln am Rhein.  
Die sollen den Sarg forttragen,  
Und senken ins Meer hinab;  
Denn solchem großen Sarge  
Gebührt ein großes Grab.  
Wißt ihr, warum der Sarg wohl  
So groß und schwer mag sein?  
Ich senkt auch meine Liebe  
Und meinen Schmerz hinein.

옛날의 그 나쁜 노래들,  
나쁘고 악한 꿈들,  
이제 모두 묻어 버리세,  
커다란 관을 가져 오게나.  
그 속에 많은 것을 넣겠지만,  
무엇인지 아직 말하지 않겠네.  
관은 더 커야 하네,  
하이델베르크의 술통보다도.  
그리고 관대를 가져오게,  
단단하고 두꺼운 판도.  
그것은 더 길어야 하네,  
마인츠의 다리 보다도.  
그리고 열두 거인들을 데려오게.  
그들은 더 견장해야 하네,  
용사 크리스토프보다도  
라인 강가 쾰른 성당에 있는.  
그들은 그 관을 운반하여  
바다 속으로 던져야 하네.  
그렇게 거대한 관에는  
거대한 무덤이 어울리니까.  
그대들은 아는가, 왜 그 관이  
그렇게 크고 무거워야 하는지?  
내 그 속에 나의 사랑도  
나의 고통도 함께 넣어야 하니까.

2) 반주 연구

적당히 느리게(*ziemlich Langsam*) 연주되는 4/4박자,  $c^\sharp$  단조곡이다. 전 67마디의 곡으로 긴 후주를 가졌으며 3부분으로 구성된 겹세도막 형식의 통절가곡이다.

이 곡의 구성을 도표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표 16>

구성	전주	A		B		C		후주
		a	b	c	c'	d	e	
마디	1~3	4~11	12~19	20~27	28~35	36~43	44~52	53~67
조성	$c^\sharp$	$c^\sharp$	$g^\sharp \rightarrow E$	$f^\sharp$	$g^\sharp \rightarrow c^\sharp$	$c^\sharp$	$f^\sharp \rightarrow c^\sharp$	$D^b \rightarrow e^b \rightarrow D^b$

시인은 사랑과 욕망, 그리고 고통도 함께 관에 집어넣는다. 이 상징적 장례의 한 가운데는 블랙 코미디의 기법이 느껴진다. 정교한 상상들, 관의 크기, 열두 명의 운구자들, 가능한 한 가장 큰 크기의 무덤의 선택-바로 라인강. 여기에 그의 분노가 위트로 억제되고 단련되어 보인다.<sup>36)</sup>

전주의 시작은 꾸밈음을 동반한 *sf*와 *fermata*( $\frown$ )의 결합으로 강한 의지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으며 *fermata*( $\frown$ )를 통한 단조화음은 제 15곡과 16곡의 가사로 미루어보아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하듯 단호하게, 특히 페달을 완전히 끊어 주어야 한다.

계속되는 전주에서도 *ff*의 강한 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성악선율과의 절도있고 단호한 느낌으로 연주되어야 하고 리듬적 공유

36) Carol Kimball, 앞의 책, p. 88

감을 느끼며 특히 피아노 오른손의 음형 중 매 4번째 8분음표의 스타카토 선율을 부각시켜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악보 47)

<악보 47> 제 1~9마디

옛날의 그 나쁜 노래들, 나쁘고 악한 꿈들,  
이제 모두 묻어 버리세

1 Ziemlich langsam

Die al - ten, bö - sen Lie - der, die

6 *mod.* \*

Träu - me bö - se und arg, die laßt uns jetzt be - graben,

인상 깊은 반주부의 음형이 부단히 반복되고 제 15~19마디 ‘관은 더 커야 하네, 하이델베르크의 술통보다도’에서 나타나는 선율은 E장조에서 f#단조, G#장조로 2도씩 상행하는데 이때 왼손 옥타브 멜로디는 성악선율과 함께 하면서, 또한 오른손 상행음계를 통해 감정의 폭을 넓혀 고조시켜야 한다. (악보 48)

<악보 48> 제 15~19마디 관은 더 커야 하네, 하이델베르크의 술통보도  
 제 23~27마디 그것은 더 길어야 하네, 마인츠의 다리 보다도  
 제 31~35마디 용사 크리스토보다도,  
 라인 강가 쾰른 성당에 있는

15

der Sarg muß sein noch grö - ßer wie's Hei - delber - ger Faß.

23

auch muß sie sein noch län - ger, als wie zu Mainz die Brück.

31

als wie der star - ke Chri - stoph, im Dom zu Cöln am Rhein.

제 35~43마디에서는 반주부가 코드형태로 바뀌고 둘째, 넷째박의 액센트는 무거운 관이 바다에 조금씩 가라앉는 듯이 무게감을 주어 깊이 있는 톤으로 표현해 준다.

제 39마디에서 감7화음에 *fermata*( $\frown$ )가 사용되는데 가사 내용처럼 어둡고 침침한 바닷물 속을 상상하면서 반주도 어둡고 무거운 *sf*로 강조되어야 한다.

제 40~43마디는 ‘거대한(*großen*)관, 거대한 무덤’이란 가사의 느낌을 살려 큰 스케일로 코드 하나하나마다 깊고 크고 어둡게 표현해 준다. (악보 49)

<악보 49> 제 35~43마디

그들은 그 관을 운반하여 바다 속으로 던져야 하네  
 그렇게 거대한 관에는 거대한 무덤이 어울리니까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starts at measure 35 and includes the lyrics: "Die sollen den Sarg fort-tragen, und senken ins Meer hin-ab; denn". The second system starts at measure 40 and includes the lyrics: "sol-chem gro-ßen Sar-ge ge-bührt ein gro-ßes Grab."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heavy chords and a bass line with a *ritardando* marking at the end.

제 44~52마디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지쳐 말조차도 크게 나오지 않을 듯 악상이 *p*로 표현되어 있다. 반주부도 성악선율과 함께 지친 감정을 표현해 주며 가사를 읊조리듯이 연주에 임하도록 한다.

제 48~52마디는 *Adagio*로 템포가 변화하고 제 49마디의 가사 'Liebe'를 노래할 때는 사랑스런 느낌을 담아 표현하고 제 50마디의 가사 'Schmerz'를 더욱 되새기며 제 51~52마디 피아노는 더욱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표현해 준다. (악보 50)

<악보 50> 제 44~52마디

그대들은 아는가, 왜 그 관이 그렇게 크고 무거워야 하는지?  
내 그 속에 나의 사랑도 나의 고통도 함께 넣어야 하니까

44  
Wist ihr, warum der Sarg wohl so groß und schwer mag sein? Ich

48  
senkt auch meine Lie - be und mei - nen Schmerz hin - ein.

15마디에 이르는 길고 아름다운 피아노의 후주는 6/4박자, *Andante espressivo*로 변화하면서 제 12곡의 <밝은 여름 아침>의 후주 제 23~28마디에 B<sup>b</sup>장조로 등장했던 진행이 재현된다(제 53~58마디). 그러나 그 선율은 제 59~60마디 D<sup>b</sup>장조 피아노의 레시타티보로 차단된다.

그러므로 제 53~58마디는 제 12곡 후주에서의 느낌 즉, 여름날의 아침햇살과 시인의 슬픔을 떠올리듯 옛 생각에 젖었다가 제 59~60마디는 깨어나듯이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고 이어지는 제 61~62마디는 반음계적 진행을 통해 복잡한 사랑의 과정을 재현해 주는데 다성부 각각의 멜로디 라인을 잘 살려 주면서 또한 하나하나 해결해 주면서 마디가 거듭될수록 *cresc.*로 감정의 폭을 넓혀 제 64마디까지 도달하게 한다.

제 64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는 *rit.*로 서서히 느려지면서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가듯이 회상을 접어간다.

이 후주는 바로 직전에 매장된 사랑의 영원한 가치를 확인해 주고, 전체 작품을 위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해 준다.<sup>37)</sup>

전 16곡을 맺는 의미도 함께 지닌 이 후주부는 옛 슬픔이 배어있는 시인의 사랑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새 삶을 위한 동경과 확연한 의지를 다지는 심리적 과정을 담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피아노 독주를 위한 이 광대한 후주부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sup>38)</sup> (악보 51)

---

37) Carol Kimball, 앞의 책, p. 88

38) Sergius Kagen, 앞의 책, pp. 341-344

<악보 51>

53

58

59

62

65

rit.

\*

rit.

\*

ritard. -

### III. 결 론

슈만(Robert Schumann : 1810-1856)의 「시인의 사랑(Dichterliebe) op. 48」은 하이네의 낭만적인 시와 슈만의 자유로운 음악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작품이다. 그의 신선한 리듬과 색채감이 풍부한 화성은 정교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결합하여 그의 음악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전 16곡으로 구성된 연가곡 「시인의 사랑」을 형식면에서 살펴보면 제 1~5곡, 제 7~10곡, 12곡은 2부 형식으로 작곡되었고 나머지 제 6, 11, 13~16곡은 3부 형식으로 작곡되었다.

시에 곡을 붙이는 방법에 있어서 제 1~4곡, 제 10~12곡, 제 15~16곡은 통절 가곡이며, 제 5~9곡, 제 13~14곡은 유절가곡 형식으로 시의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다양하게 변화시켰다.

슈만은 하이네의 단어를 바꾸거나, 음악적인 요구가 정당할 때는 시의 구절을 반복하기도 했는데 제 9곡에서 “Da tanzt den Hochzeitreigen”을 음악적으로 여분의 음절이 필요했기 때문에 “Da tanzt wohl den Hochzeitreigen”로, 제 13곡에서 “Ich grolle nicht”라는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시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었다.

조성면에 있어서 각각의 곡들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하이네 시집에서 각기 따로 발췌한 시들을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 슈만이 의도적으로 행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는 앞뒤의 곡을 서로 나란한조와 버금딸림조 관계를 이루게 하였으며 또한 곡의 중간에 장조와 단조의 변화도 많이 사용되었다.

주로 자연의 모습이나 기쁨, 희애 등을 표현하는데는 장조를 사용하

었는데 제 12곡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고, 단조를 통하여 시인의 심리, 절망, 비애 등을 부분적으로 표현한 예는 5, 6, 8, 10곡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슈만은 성악부에 비교적 단순하고 쉬운 음정을 사용하였다. 이에 비해 반주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제 2~5곡, 제 10~15곡은 반주가 노래 선율을 중복하는 형태, 단순한 레시타티보(*recitativo*)적인 선율에 반주가 화음을 이루는 경우, 음절하나에 한 음부로 되어 있는 화성적인 형태 등 종속적인 반주 유형이다. 또 한가지는 독립반주 유형으로 제 1곡, 제 6~9곡, 제 16곡에서는 반주가 노래를 변주하는 분산화음 형태이면서 성부에 종속되지 않고 노래와 반주가 서로 주고 받는 2중주적인 형태로 나뉘볼 수 있다.

슈만은 「시인의 사랑」 전 곡을 통해 다양하고 인상적인 피아노의 음악적 수식에 의존했다. 예를 들어 제 1, 5, 10, 12, 16곡의 후주에서는 관능적인 욕망, 그리움의 감정, 향수, 내적인 고통을 묘사하기 위해서 많은 아르페지오풍의 화음으로부터 생겨나는 선율을 사용했다. 반면 제 9곡의 반주는 완전히 성악부와 독립되어 나타난다.

이 연가곡에서의 후주는 작품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완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어지는 곡에 대한 중요한 심리적이고 음악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제 4~6곡, 제 8~12곡, 제 15~16곡은 특히 후주가 길게 나오는 곡으로, 제 4곡의 경우 후주가 노래와 같은 선율을 되받고 있으며, 제 6곡의 경우는 노래의 미완결된 마지막 부분을 완결해 주고, 제 8곡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성악부나 그 곡의 앞부분 반주와 판이하게 다른 형태가 후주에 등장하고 있다. 가장 긴 후주를 갖는 제 16곡은 전 16곡을 총 마무리하는 듯한 종합적 성격을 띠며 하나의 피아노 소품처럼 독자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

「시인의 사랑」은 발췌해서 연주가 가능하나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암시하는 순서대로 정렬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이니만큼 제 1~16곡까지 하나의 곡처럼 쉽 없이 연주되는 것이 작품의 본질에 좀 더 가까이 근접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 1. 국내 서적 및 번역서

- 김연순, 「도이치 시 문학의 어제와 오늘」  
서울 : 사계절, 1993
- 세광편집국. 「최신명곡해설전집24권」 서울 : 세광, 1992
- Gorrell, Lorraine, 「19세기 독일가곡」 심송학 역,  
서울 : 음악춘추사. 1998
- Heine, Heinrich, 「하이네시집」 강두식 역.  
서울 : 삼호출판사, 1986
- Henry, T. Fink, 「가곡의 역사와 작곡가」 삼호출판사 역  
서울 : 삼호출판사, 1976
- Roatand, C, 「독일음악」 서울 : 삼호출판사. 1986

### 2. 외국 서적

- Basch, Victor. 「Schumann」 New York : Tudor. 1980
- Ewen, David. 「Musical Masterworks」  
New York : Argo. 1972
- Gustave, F. Jansen. 「Schumann briefe」

- Leipzig : Neue folge. 1904
- Kagen, Sergius. 「Music for the voice」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1968
- Kimball, Carol. 「Song」 Washington : Redmond. 1996
- Lehmann, Lotte. 「More than singing」  
Westport : Dover. 1975
- Miller, L. Philip. 「The Ring of words」  
New York : Norton. 1973
- Sadie, Stanley.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X vols.」  
London : Macmillin Co. 2002

### 3. 학위 논문

- 강은미. 「Schumann의 연가곡“시인의 사랑”(Dichterliebe) 작품48  
연구」 Schumann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2
- 천현주. 「슈만의 연가곡“시인의 사랑”(Dichterliebe) 작품48에 관  
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 원동실. 「Robert Schumann의 Dichterliebe op. 48에 대한 악곡의  
분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79

### 4. 악보

Robert Schumann Lieder for solo voice and piano  
Band / volume I (edition peters)

# ABSTRACT

## A Study on R. Schumann's *Dichterliebe*, op. 48

Oh, Ji Young

Dept. of Accompanying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a study on Schumann(Robert Schumann, 1810-1856)'s song cycle 「*Dichterliebe*, op.48」 .

It is composed of 16 songs written on the poem of Heinrich Heine (1797-1856). From the first to the sixth songs sing a joy of love and from the seventh to the fourteenth sing a bitterness of a broken heart. And the last two songs express the nostalgia for the youth gone by.

The poems depict an unanswered love, agony and misery when a hope, wonder and love culminate into a broken heart. Schumann

recreated the poems into a symphony for singers.

The songs follow the story of lost love and adjacent songs are linked with related keys. The strongest link between songs is that a part of the 12th song is used in the postlude of the 16th song. As a whole, however, each song of 「**Dichterliebe, op.48**」 is independent in structure and rich in variation.

The evolution of story is more weighed than the form of music and all factors of music are closely integrated into it. It also acquires the significance in that the piano accompaniment has developed its own part getting out of the conventional supporting role.

「**Dichterliebe, op.48**」 can be said to be beautiful songs singing a hope and a resolution for a new life reborn from the scar of lost loves.

